2014년 경제전망

2013. 12

기 획 재 정 부

순 서

Ⅰ. 최근 경제상황 평가 ····· 1

1. 경제성장 ····· 1
2. 고용 ····· 10
3. 가계소득과 임금 ····· 14
4. 물가와 부동산 가격 ····· 15
5. 수출입과 경상수지 ····· 20
6. 금융시장과 자금사정 ····· 25
7. 외환시장 ····· 29
8. 평가 ····· 30

Ⅱ. 대외여건 점검 ····· 31

1. 세계경제 ····· 31
2. 국제원자재가격 ····· 35
3. 국제금융시장 ····· 37

Ⅲ. 2014년 경제전망 ····· 41

1. 경제성장 ····· 41
2. 고용 ····· 49
3. 소비자물가 ····· 51
4. 수출입과 경상수지 ····· 53

[참고 순서]

참고 1: 금년도 재정운용 성과와 과제 ····· 2

참고 2: 소비부진 원인과 시사점 ····· 4

참고 3: 설비투자 현황과 중요성 ····· 7

참고 4: 우리 경제의 생산성 현황과 시사점 ····· 8

참고 5: 최근 50대 고용동향의 특징과 시사점 ····· 11

참고 6: 우리나라와 OECD 주요국 고용률 비교 ····· 13

참고 7: 최근 글로벌 물가동향 분석 ····· 16

참고 8: 최근 전월세 시장 동향과 시사점 ····· 18

참고 9: 일본 수출동향과 엔화약세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 23

참고 10: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과 평가 ····· 27

참고 11: 회사채시장 동향과 평가 ····· 28

참고 12: 아시아 주요 신흥국 경제동향 ····· 33

참고 13: 美 예산안·채무한도 관련 동향과 전망 ····· 34

참고 14: 국제 원자재 가격변동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 36

참고 15: 美 양적완화 축소의 국내경제 파급효과 ····· 39

참고 16: 교역조건이 민간소비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 ····· 44

참고 17: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 추이와 시사점 ····· 50

참고 18: 글로벌 교역사슬(Trade chain) 현황과 시사점 ····· 55

Ⅰ. 최근 경제상황 평가

1. 경제성장 | 경기 회복조짐 점차 강화

□ **(GDP 성장)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 패키지 효과** 등으로 '11.4/4분기 이후 7분기 만에 **3%대 성장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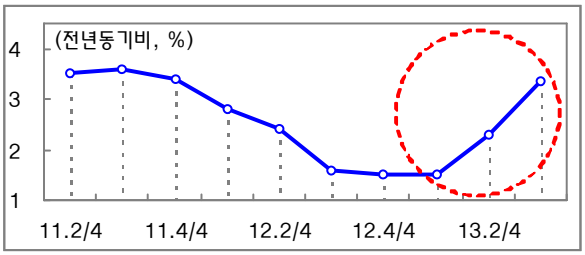
○ **소비**는 고용여건과 소비심리가 꾸준히 개선되면서 **회복세**가 이어지고 **투자**도 수출·소비 개선 등으로 **완만하게 증가**

- **수출·수입**이 **모두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최근 **소비재·자본재 수입 증가세** 고려 시 **향후 소비·투자 회복에 긍정적**

* 소비재수입(전년동기비, %): ('13.1/4)4.8 (2/4)6.4 (3/4)6.8 (10~11월)13.0
* 자본재수입(전년동기비, %): ('13.1/4)△4.4 (2/4)3.2 (3/4)5.4 (10~11월)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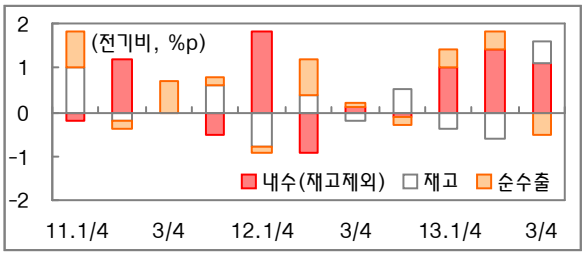
- **재고**는 상반기 조정을 거친 후 **최근 생산과 함께 늘면서, 성장에 기여**

GDP 성장률



* 자료: 한국은행

내수·순수출 성장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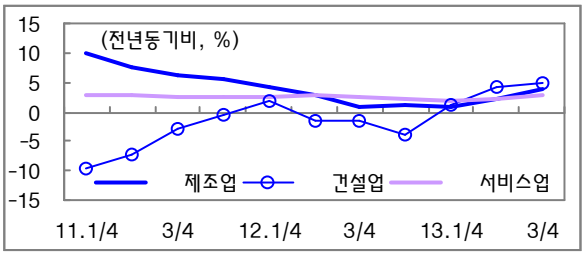
* 자료: 한국은행

○ 내수·수출이 완만하게 개선되면서 **제조업·서비스업·건설업 모두 증가세** 유지

○ **정부 재정이 경기회복에 마중물 역할**을 수행한 가운데, 최근에는 **민간**으로 점차 **회복세**가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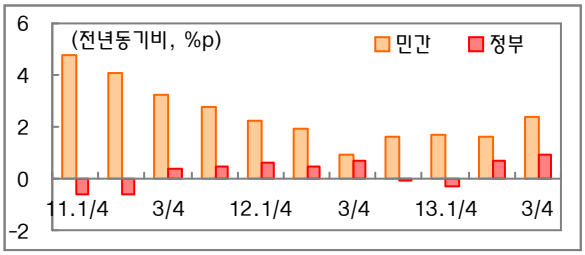
※ 금년도 재정운용 성과와 과제: 참고 1

산업별 증가율



* 자료: 한국은행

민간·정부부문 성장기여도



* 자료: 한국은행

[참고 1] 금년도 재정운용 성과와 과제

1 **(경기대응 강화)** 상반기 중 **재정지출 확대**와 **조기집행**을 통해 경기에 **적극적**으로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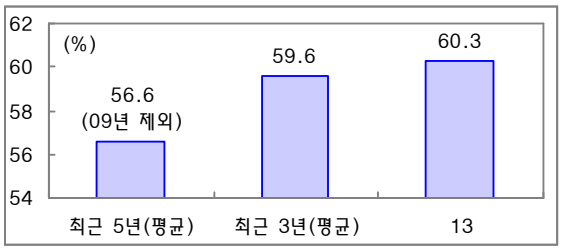
○ 2년 여간 지속된 **저성장 흐름에서 벗어나기 위해** 두 차례 **경제 위기**('98, '09년)를 **제외**하고 **최대 규모**의 **추경 편성**(기금포함 19.3조원)

* 세입경정·지출확대를 통해 '13년 중 0.3%p 성장제고 효과 기대(조세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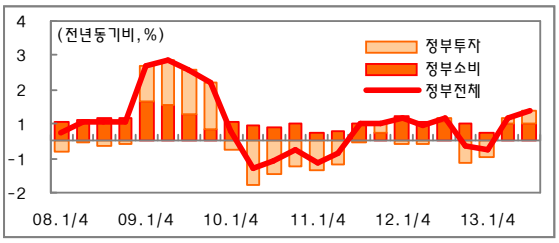
○ **재정 조기집행**을 통해 **민간부문의 미약한 회복 모멘텀**을 **보완**

* 상반기까지 연간계획대비 60.3% 집행(총 289.1조원 중 174.3조원 집행)

상반기 재정집행



정부부문 성장기여도



2 **(추가 재정보강)** 조기집행 등에 따른 하반기 재정여력 약화에 대응하여 **기금지출 확대·공기업투자** 등의 **경기보완 방안** 추진

'13년 하반기 재정보강 주요내용(조원)

구분	기금계획 변경	공기업 투자 확대	공공기관·지방공기업 투자집행률 제고	공기업 투자 당겨집행[1]	계
규모	1.8	0.5	1.4	0.1	3.8

1」사내유보금 등을 활용하여 '14년 공공기관 투자계획을 당겨 집행

3 **(종합평가와 과제) 적극적 재정운용**이 저성장 흐름에서 벗어나 **경기가 턴어라운드**(turnaround)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

○ **2/4분기 부터** 추경을 포함한 **재정집행**이 **본격화**됨에 따라 **'09년 이후** 정부가 **성장에 가장 크게 기여**

* 다만, 정부출범 지연에 따른 재정집행 차질로 1/4분기 중에는 정부가 성장에 (-) 기여(전년동기대비 △0.3%p)

○ **'14년**에도 재정건전성 등을 고려하면서 **재정의 경기대응 기조 유지**

* 재정충격지수(FI, 0 초과 시 확장기조): ('11)0.2 ('12)△0.2 ('13)0.6 ('14)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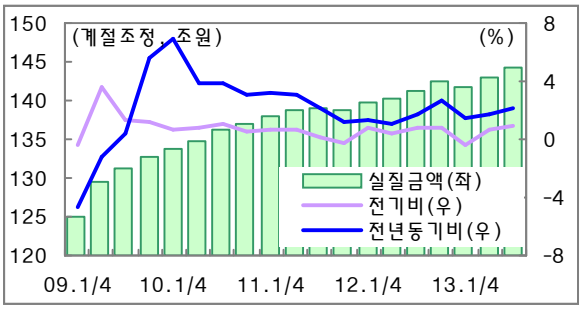
- BTL·BTO 등 **민간투자 활성화**, 정책자금 지원(수출금융, 중소기업 등), R&D 투자지원 등을 통해 **경기대응성 보완**

작성자: 경제정책국 재정기획과 전보람 사무관(044-215-2832)

지출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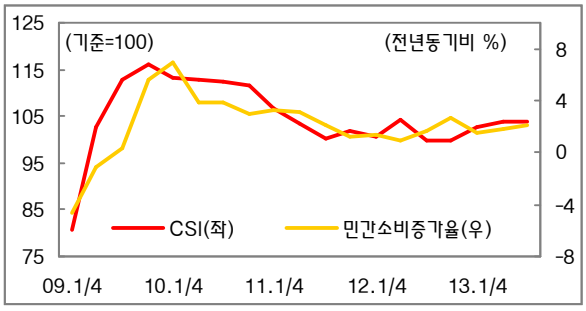
1 (민간소비) 최근 취업자 수 증가 폭 확대, 물가안정세 지속, 소비심리 개선 등으로 완만한 증가세

국민계정상 민간소비



* 자료: 한국은행

소비자심리와 민간소비증가율



*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 **내구재 소비는 다소 부진**하나, **준내구재 및 비내구재 소비**를 **중심으로 점차 개선**되는 모습

- **내구재 소비**는 '12년말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로 1/4분기에 **증가세**가 **둔화**된 이후, 자동차업계 파업 등으로 **개선세**가 **제약**

  * '12년말 승용차 개소세 인하 종료를 앞두고 4/4분기 중 선구매가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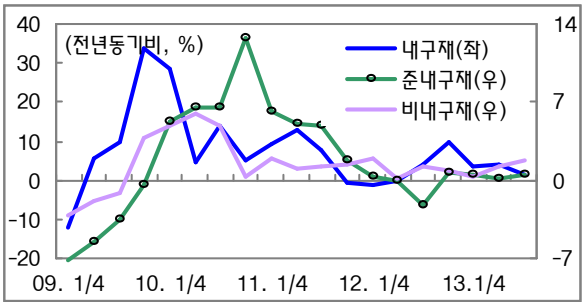
- 의복 등 **준내구재 소비**는 경기가 점차 개선됨에 따라 **증가**

- **비내구재 소비**는 **음식료품** 등을 중심으로 완만하게 **개선**

  * 음식료품 판매(전년동기비, %): ('12.4/4)1.4 ('13.1/4)0.1 (2/4)2.0 (3/4)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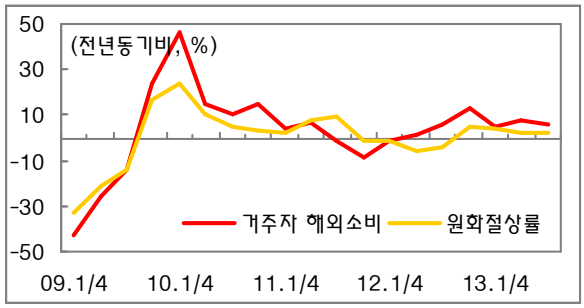
○ **해외소비**는 원화절상 추세 등으로 '12년 하반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형태별 소비



* 자료: 한국은행

해외소비 및 원화절상률



*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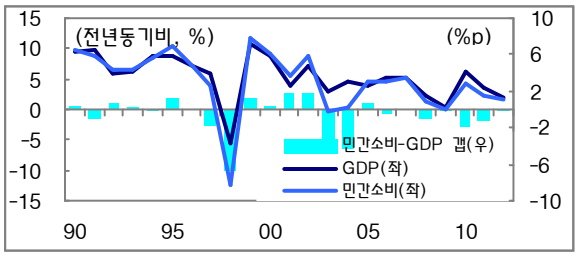
※ 소비부진 원인과 시사점: 참고 2

[참고 2] 소비부진 원인과 시사점

□ **(현황)** '90년대 이후 우리 경제가 위기를 겪을 때마다 **민간소비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하회**하며 부진한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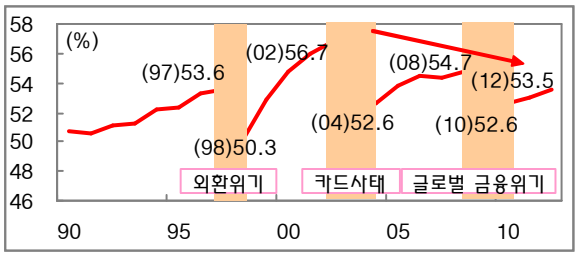
○ **GDP대비 민간소비 비중**도 '03년 카드사태로 인해 **급락**한 이후, 최근까지도 '00년초반 수준('02년 56.7%)을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

민간소비 및 GDP 증가율 추이



* 자료: 한국은행

민간소비 비중(GDP대비) 추이



* 자료: 한국은행, 명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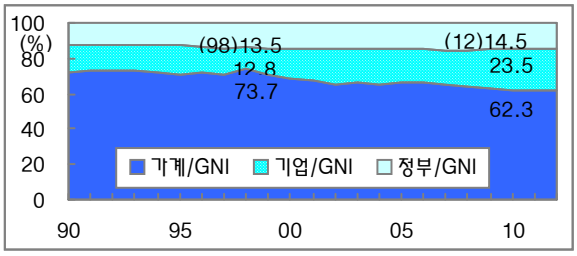
□ **(소비부진 원인)** 민간소비 부진은 **가계소득비중 하락, 가처분소득 비중 축소 및 평균소비성향 하락** 등에 기인

* 가계소비/국민소득 = 가계소득/국민소득(가계소득비중) × 가처분소득/가계소득(가처분소득비중) × 가계소비/가처분소득(평균소비성향)

① **(가계소득비중 하락) 임금소득 부진, 자영업 위축, 순재산소득 감소** 등으로 가계소득증가율이 둔화되고, 국민소득대비 비중도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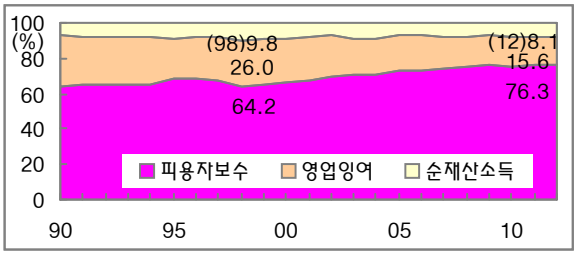
* 다만, 가계소득 구성항목 중 피용자보수 비중은 자영업자 영업잉여와 순재산소득 비중이 줄면서 상대적으로 확대

제도부문별 소득비중



* 자료: 한국은행

가계소득 구성항목별 비중



* 자료: 한국은행

- **(임금소득 부진)** 글로벌 금융위기 후 **임금근로자 증가세와 임금상승률** 둔화로 **피용자보수 증가율이 둔화**('90년대 12.0→'00년대 7.0%)

* 임금근로자 증가율(%): (90~97)3.2 (00~12)2.6
* 명목임금 상승률(10인이상, 상용직, %): (90~97)13.3 (00~12)5.9

- **(자영업 위축)** 경쟁심화, 저생산성 등으로 **자영업 비중이 감소**하고 **영업잉여 증가율도 둔화**('90년대 10.9→'00년대 1.4%)

* 자영업자 비중(전체 취업자 대비, %): ('00)27.7 → ('12)23.2

- **(순재산소득 둔화)** 가계부채 누증에 따른 지급이자 증가, 저금리로 인한 수취이자 정체로 **순재산소득 부진**('90년대 14.8→'00년대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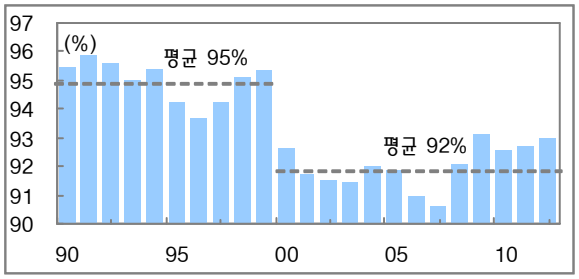
  * 저축성수신금리(신규, %): ('96)10.8 ('00)7.0 ('05)3.6 ('10)3.2 ('12)3.4

② **(가처분소득비중 감소)** '00년대들어 가처분소득 비중이 하락하여 최근의 상승세에도 불구, **'90년대 수준(평균 95%)을 하회**

- 사회보험료 등 **사회부담금 중심**의 **비소비지출이 증가**한 데 기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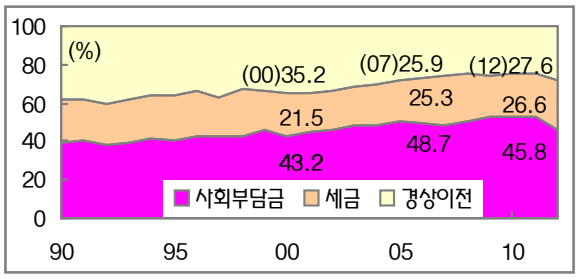
  * 비소비지출 = 조세 + 사회부담금(연금기여금, 사회보험료 등) + 경상이전
  * 구성내역별 증가율('03~'12 연평균, %): (조세)7.7 (연금)6.5 (사회보험)9.0 (이전)3.8

가계 가처분소득 비중 추이



* 자료: 한국은행

비소비지출 구성항목별 비중



* 자료: 한국은행

③ **(평균소비성향 하락) 가계부채 증가, 인구고령화, 자산가격 부진** 등이 가계 소비성향 제약요인

  * 평균소비성향(%) : ('06)77.6 ('07)76.6 ('08)75.9 ('09)76.6 ('10)77.3 ('11)76.7 ('12)74.1

- **(가계부채 증가) 가계부채 누증**에 따른 **원리금상환 부담**이 소비제약

  * 가계신용추이(조원): ('09)776.0 ('10)843.2 ('11)916.2 ('12)963.8 ('13.3/4)991.7
  * 최근에는 전월세 상승세로 인해 거액대출 비중이 증가하면서 추가적 부담 (실질전세가격 1% 상승시 소비는 단기적으로 0.37% 감소추정, 한은)

- **(인구고령화)** 노후대비 **예비적저축 수요** 등으로 고령층 소비성향 하락

  * 60세이상 평균소비성향(%): ('01)84.9 ('05)77.9 ('10)74.6 ('11)71.3 ('12)71.5

- **(자산가격 부진)** 금융위기 이후 주택가격 등 **자산가격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소비에 부정적 영향

  *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전국, %): ('07)5.8 ('08)5.9 ('09)1.5 ('10)1.5 ('11)6.1 ('12)△1.4 ('13.11월)0.1

3 **(시사점)** 최근의 소비부진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가계소득 여건 개선** 등 가계건전성 제고 대책 추진 필요

○ **고용확대, 자영업자 경쟁력 강화** 등 소득여건을 지속 개선하고, **가계부채관리** 및 **부동산시장 정상화** 등을 차질없이 추진

작성자: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 박상우 사무관(044-215-2735)

2 (설비투자) 대내외 불확실성, 수요부진 등으로 상반기 중 부진한 흐름을 보였으나 3/4분기 들어 증가세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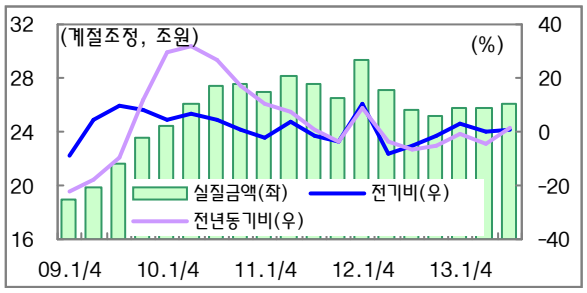
○ **기계류 투자**는 최근 들어 수출 증가세 확대 등에 따라 **부진이 완화**되는 모습

* 수출증가율(통관, 전년동기비, %): (13.1/4)0.4 (2/4)0.7 (3/4)2.7

○ **운송장비 투자**는 항공기 도입 등으로 **완만히 증가**하였으나 **최근에는 다소 주춤**한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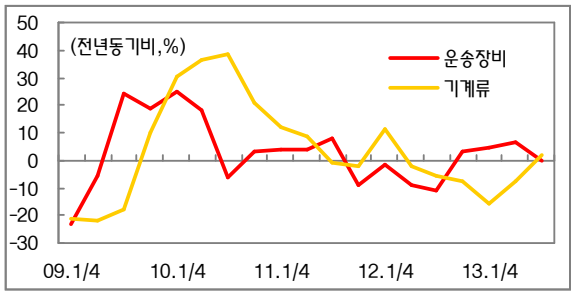
* 항공기 수입(억불): (12.4/4)5.0 ('13.1/4)9.6 (2/4)5.4 (3/4)7.0

국민계정상 설비투자



* 자료: 한국은행

형태별 설비투자



* 자료: 한국은행

※ 설비투자 현황과 중요성: 참고 3
※ 우리 경제의 생산성 현황과 시사점: 참고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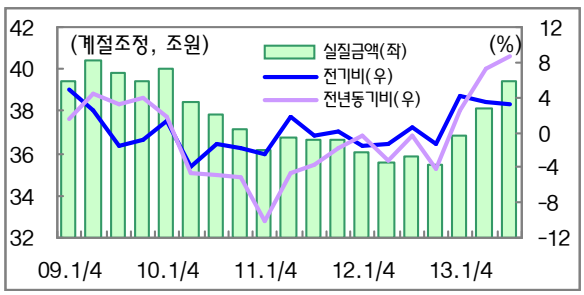
3 (건설투자) 신도시 분양, SOC예산 확대 등으로 증가세 지속

○ **건물건설**은 위례·동탄 등 **2기 신도시 건설**이 **지속**되고, 주택시장 개선 기대감 등으로 **신규분양이 이어지면서** 개선흐름

*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분양물량 크게 확대(1~11월 기준 2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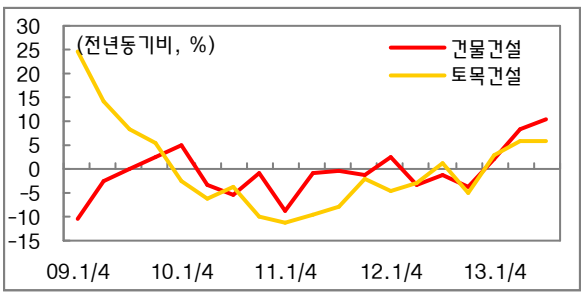
○ **토목건설**은 **SOC 예산 확대**('12년 23.1 → '13년 추경예산 25.0조원), **발전부문 투자 증가** 등으로 개선세 지속

국민계정상 건설투자



* 자료: 한국은행

형태별 건설투자



* 자료: 한국은행

[참고 3] 설비투자 현황과 중요성

1 **(현황)** 최근 **설비투자**는 **그간의 추세**(증가율, 수준), **국민소득 3만불 달성에 필요한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부진**한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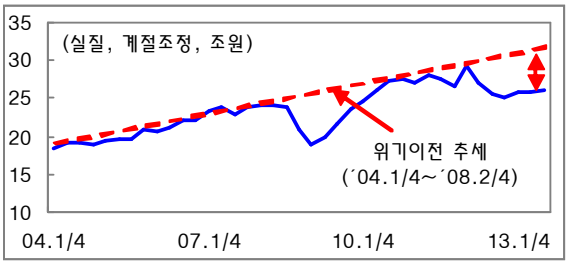
○ **설비투자 증가율**은 경제가 성숙되면서 투자기회가 줄어들고 경제위기 이후 투자가 보수화되면서 **추세적으로 하락**

* 설비투자증가율(%, 기간중 평균): (81~90)12.6 (91~97)8.7 (00~10)5.7

○ **설비투자 수준**도 **'12년부터 설비투자가 감소세**를 보이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추세를 큰 폭으로 하회**

○ 국민소득 3만불 달성에 필요했던 **선진국** 설비투자 추이·규모와 **비교 시 상대적으로 미약**

설비투자 장기추이



1인당GDP 1~3만불 기간중 설비투자*

	美	英	獨	韓**
설비투자(%)	7.26	5.04	3.03	5.50
GDP(%)	3.08	3.03	1.82	4.56
설비/GDP	**2.36**	**1.66**	**1.66**	**1.21**
3만불달성 소요기간	18년 (78~96)	16년 (87~03)	24년 (81~05)	18년+ (95~12+)

* OECD data를 활용한 자체 계산
** 현재 우리 경제 1인당 GDP는 2.4만불 수준

2 **(중요성)** 설비투자는 **장·단기 성장**과 **자금의 선순환** 등에 기여

○ 설비투자 증가는 **당해 연도 성장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고용증가**에 따른 가계소득 증대, **소비여력 확충** 등의 파급효과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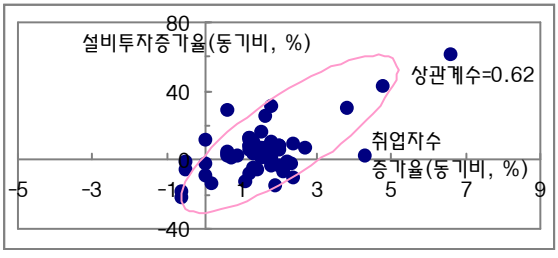
* 금년 중 추세수준의 설비투자가 이뤄졌을 경우 경제성장률이 2%p 이상 상승

○ 설비투자 시 **신기술이 체화**(질적향상)**됨에 따라 생산성 향상**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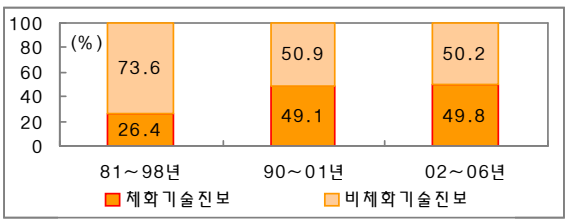
* 예) CPU 성능이 486에서 펜티엄 등으로 진보하며 기술수준이 향상되는 경우

○ 설비투자 확대 시 **금융권**에 머물러 있는 **기업들의 단기자금**(약 300조원, '13.9월 자금순환표)을 **생산적으로 활용가능**

설비투자와 고용과의 관계



총요소 생산성의 요인별 기여도



*설비투자의 질적개선이 성장에 미친 영향(한은, 08.4월)

3 **(시사점)**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와 **현장의 건의·애로사항 해소** 등 투자촉진 노력 지속 필요

작성자: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 한주희 사무관(044-215-2733)

[참고 4] 우리 경제의 생산성 현황과 시사점

1 **(현황)** 우리 경제의 생산성은 **OECD 평균, 주요국 국민소득 3만불 달성 시점** 등을 고려시 **낮은 수준**이며, **부문간 생산성 격차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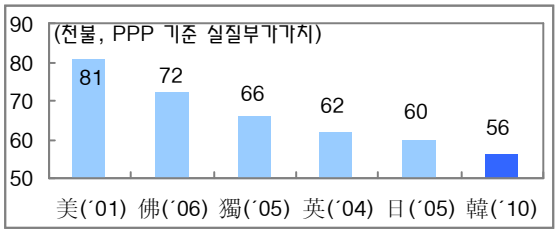
* '11년 1인당 노동생산성(천불, PPP 기준 경상부가가치): (OECD) 78 (한국) 62

○ **(산업별)** 제조업 생산성은 꾸준히 향상되어 온 반면 **서비스업은 지체**되어 **제조업-서비스업간 생산성 격차가 확대**

- 제조업 위주 경제시스템, 고부가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 전통 서비스업의 저부가·과잉인력 구조* 등이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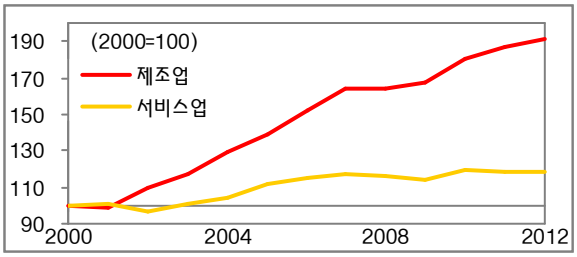
* 도소매·음식·숙박업의 경제 내 비중('09, %, OECD)
<고용> (한국)23.6 (OECD)20.6, <부가가치> (한국)11.3 (OECD)14.4

1인당 GDP 3만불 달성시점 노동생산성



* 자료: OECD, 생산성본부
** 미국은 국민소득 3.5만불, 한국은 2.8만불 시점

제조업·서비스업 노동생산성 추이



* 자료: 통계청, 생산성본부

- 한편,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ICT 활용 정도도 저조**

* '09년 산업별 ICT 중간재 투입률(ICT/전체 중간재, %, '13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전산업) 11.5 (컴퓨터) 74.7 (전자·통신장비) 62.8 (음식·숙박) 1.0 (운수·보관) 1.8

○ **(기업규모별)** 설비투자 및 R&D 부족, 기술직·연구직 인력부족 등으로 **중소기업 생산성이 지체**되면서 **대·중소기업간 생산성 격차도 지속**

*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 비율(제조업, %, 한은)
: ('02)40.3 ('04)37.1 ('06)40.7 ('08)34.9 ('10)34.7

* 대·중소기업 생산성 관련 투자 (제조업, '10, 한은)
(노동장비율, 백만원): (대)279 (중소)84, (매출액 대비 R&D, %): (대)1.8 (중소)1.1

2 **(시사점)**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 등을 고려할 때, **국민소득 향상과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이 시급**

○ 취약분야인 **중소기업·서비스업** 등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경쟁 촉진, 규제 완화, 기술혁신 지원** 등의 정책 노력이 필요

○ **창조경제**를 통해 생산성 선도산업인 **ICT 산업과 타산업의 융복합**을 촉진할 필요

작성자: 경제정책국 정책기획과 김태웅 사무관(044-215-2815)

생산 측면

1 **(광공업 생산)** 자동차 파업 등 **일시적 요인**으로 **월별 등락**은 있으나, **최근 완만하게 개선**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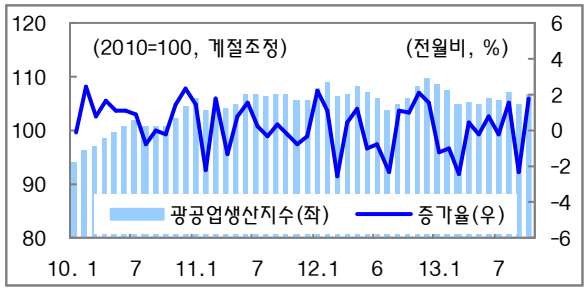
* 광공업생산(전기비, %): ('13.1/4)△0.9 (2/4)△1.4 (3/4)0.5 (10)1.8

○ 상반기 중 **재고가 일부 조정**되었고, 최근 **출하가 증가세**로 **전환**됨에 따라 **향후 생산증가**에 **긍정적**

* 출하 증가율(전기비, %): ('13.1/4)△0.7 (2/4)△0.8 (3/4)0.3 (10)1.5
* 재고 증가율(전기비, %): ('13.1/4)△1.5 (2/4)△2.0 (3/4)5.9 (1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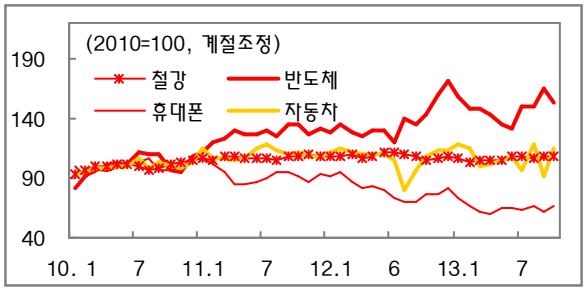
○ **반도체**는 상반기 부진을 **차츰 만회**하는 모습이며, **휴대폰**과 **철강**은 **횡보세**, **자동차**는 파업 등으로 **부진**했으나 최근 다소 개선

광공업생산



* 자료: 통계청

업종별 광공업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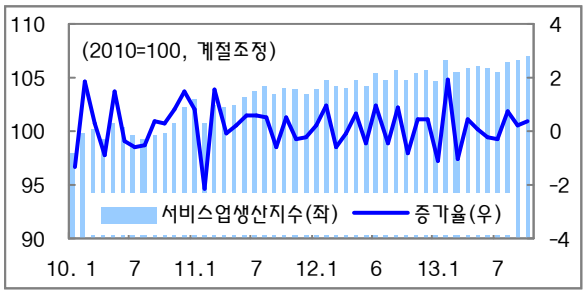


* 자료: 통계청

2 **(서비스업 생산)** **완만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업종별로는 차별화**된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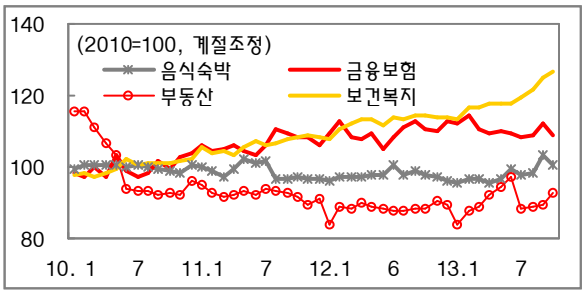
○ **보건·복지업**은 꾸준한 **개선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간 부진했던 **부동산·임대업**도 **최근 들어 점차 개선**

서비스업생산



* 자료: 통계청

업종별 서비스업생산



* 자료: 통계청

2. 고 용 | 증가세 확대

□1 **(취업자수)** 경기의 완만한 회복, 추경 등 일자리 정책 등으로 1/4분기 부진에서 벗어나 **증가세가 점차 확대**

○ **제조업 고용**은 **점차 둔화**되고 있으나 보건·복지 등 **서비스업이 고용 증가**를 **주도**

○ **상용직** 중심으로 임금근로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자영업자**는 올해 들어 **지속적**으로 **감소**

○ 연령대 이동 효과 등으로 **50대 이상**을 중심으로 **고용이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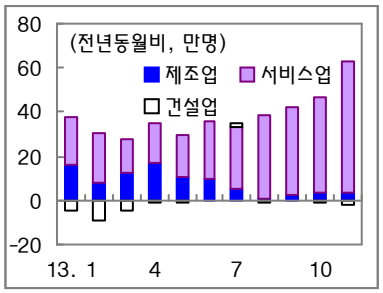
- **일자리 미스매치** 등으로 지속 감소하던 **청년층**은 '13.9월 16개월만에 **증가 전환**한 후 **3개월 연속 증가세**

※ 최근 50대 고용동향의 특징과 시사점: 참고 5

○ 하반기부터 **보건복지업** 등을 중심으로 **여성 고용 증가세가 빠르게 확대**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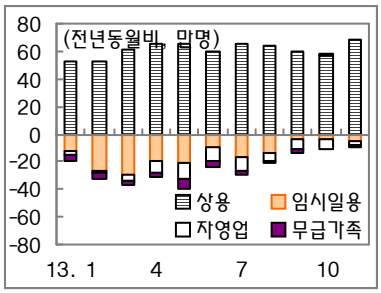
* 여성 취업자 증가(전년동기비, 만명): ('13.1/4)13.5 (2/4)14.5 (3/4)24.2 (10~11월)29.4

산업별 취업자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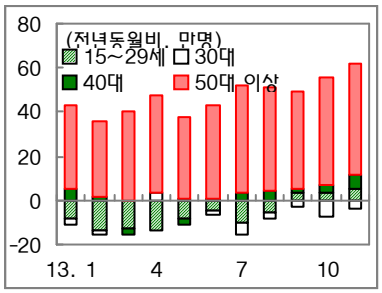
* 자료: 통계청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증감



* 자료: 통계청

연령별 취업자 증감



* 자료: 통계청

□2 **(고용률·실업률)** **고용률**은 **하반기** 들어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으며, **실업률**도 **하반기**에 **소폭 개선**

※ 우리나라와 OECD 주요국 고용률 비교: 참고 6

고용률·실업률

(계절조정, %)	'12연간	3/4	4/4	'13.1/4	2/4	3/4	10월	11월
고용률(15~64세)	64.2	64.3	64.1	64.1	64.2	64.6	64.8	64.9
실업률(15세 이상)	3.2	3.1	3.0	3.3	3.1	3.1	3.0	2.9

* 자료: 통계청

(참고 5) 최근 50대 고용동향의 특징과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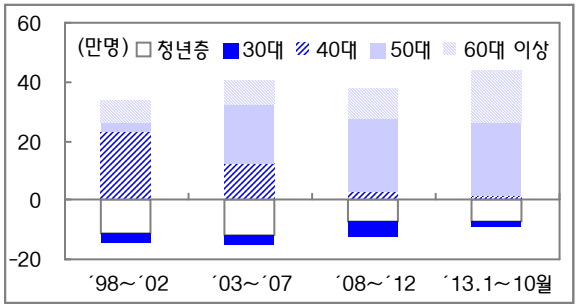
□ **(동향)** '00년대 중반부터 50대 연령층에서 **큰 폭의 취업자 증가세가 지속**되어 **전체 고용증가 흐름을 주도**하는 모습

* 50대 취업자 증가/총 취업자 증가(%): ('98~'02)18.3 ('03~'07)78.8 ('08~'12)101.0 ('13.1~10)7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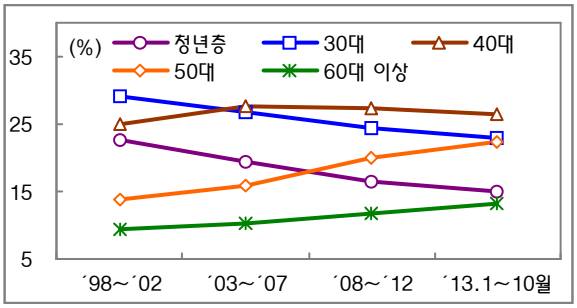
○ 이에 따라 **50대 취업자가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4%**('98~'02년)에서 **22%**('13.1~10월)로 빠르게 상승

* 한편, 40대 취업자 비중은 정체되고 30대 이하 취업자 비중은 감소 추세

연령별 취업자 증감



연령별 취업자 비중



□ **(특징) 50대 취업 증가**를 연령대 이동 요인*과 고용시장 요인**으로 구분해 보면 **연령대 이동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

* 신규 진입 연령의 취업자 규모와 이탈 연령의 취업자 규모의 차이

** 경기상황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03, '09년은 카드사태, 글로벌 금융위기로 고용시장 요인 규모는 각각 △11.2, △14.8만명)

50대 취업자 증감 요인 분해('05년~'13.10월)

(단위: 만명)	취업자 증감 (A-B+C)	연령대 이동 요인(A-B)			고용시장 요인 (C)
			50세 진입(A)	59세 이탈(B)	
'05~'08년	24.2	29.4	54.8	25.4	△5.2
'09년	19.8	34.5	63.5	29.0	△14.8
'10~'12년	28.5	37.0	68.1	31.1	△8.5
'13.1~10월	24.8	30.8	65.7	34.9	△6.0

○ 큰 폭의 (+) 연령대 이동 요인에도 불구하고 **고용시장 요인이 (-)**를 보여 **50대 취업자 증가가 연령대 이동 요인보다 축소**

* '13.1~10월 50대 취업자 증가(24.8) = 연령대 이동 요인(30.8) + 고용시장 요인(△6.0만명)

- **연령대 이동 요인**은 **베이비부머**('55~'63년생) 취업자의 50대 진입 등에 따라 **'05년 이후 크게 확대**(매년 30만명 상회)

* 베이비부머 중 '55년생이 '05년부터 50대 진입

- **고용시장 요인이 (-)를 지속**[*]하고 있으나 올해 들어 **다소 완화**

* 50대는 퇴직이 본격적으로 도래하는 연령층으로 고용시장 요인이 기본적으로는 (-) 상태

▪ 올해 들어 우리 경제가 그간의 **저성장 흐름을 벗어난 것이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

< 참고: 50대 연령층 고용 증가의 부문별 분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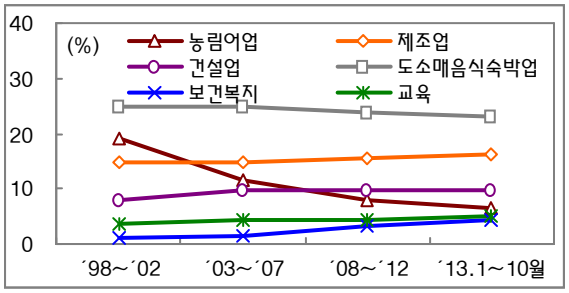
□ **(산업별) 제조업, 보건복지, 교육서비스업** 등의 비중이 증가하는 반면 **도소매·음식·숙박, 농림어업** 비중은 둔화

○ **제조업, 교육**서비스업, **농림어업** 비중 변화는 **연령대 이동**요인이, **보건복지업, 도소매·음식·숙박** 비중 변화는 **고용시장 요인**이 주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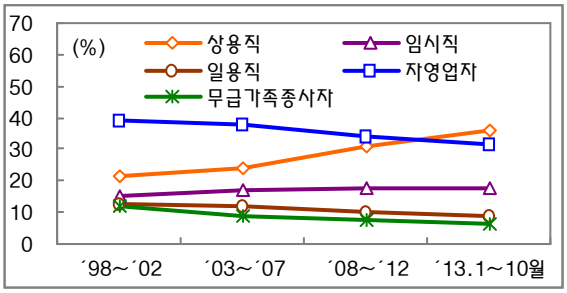
□ **(종사상지위별) 상용직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반면 **자영업** 비중은 **빠르게 둔화**하고 **일용직** 비중도 **축소**

○ **상용직, 임시직** 비중 변화는 **연령대 이동** 요인에, **자영업, 일용직** 비중 변화는 **고용시장 요인**에 주로 기인

50대 산업별 비중 추이



50대 종사상지위별 비중 추이



□ **(시사점)** 향후 **베이비부머 이탈**로 **연령대 이동 요인 규모가 축소**('15년부터)될 것으로 전망되는 한편, 60세 정년 의무화 등에도 불구하고 **고용시장 요인을 (+)로 전환**시키기는 쉽지 않을 가능성

➡ **고령화 추세에 맞추어 50대 이상** 연령층의 **고용시장 요인 개선**을 위한 정책 노력[*] 강화 필요

* 예시: 전직·재취업 지원 강화,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고령층·청년층 고용 상생 기반 확충 등

작성자: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 이재화 사무관(044-215-2734)

[참고 6] 우리나라와 OECD 주요국 고용률 비교

□ **(연령별)** 우리나라의 **전체 고용률**(15~64세)은 **OECD 평균**을 **소폭 하회**하나, **15~24세 고용률**은 OECD 평균에 비해 **크게 부진**

* 15~64세 고용률('12년, %): (우리나라)64.2 (OECD)65.0 (고용률 70% 이상 국가)73.8
* 15~24세 고용률('12년, %): (우리나라)24.2 (OECD)39.7 (고용률 70% 이상 국가)53.2

○ **높은 대학 입학률**로 경활 참가율이 낮은 가운데 **높은 취업 눈높이, 인력 수요-공급간 미스매치** 등에 따른 취업기간 장기화에 주로 기인

* 4년제 대학 이상 입학률: (우리나라)69 (OECD)60
* 대졸자 실제임금/희망 최소임금 비율('09년, %): (대기업)98.1 (중소기업)80.6

○ 반면, **고령층**(55세 이상)은 **기대 수명 증가, 노후소득보장체계 미흡** 등에 따른 노동공급 확대 등으로 고용률이 OECD 평균을 상회

* 기대 수명(세): ('90)71.3 ('95)73.5 ('00)76.0 ('05)78.6 ('10)80.8 ('12)81.2
* 고령층(55~79세) 장래근로 희망 비중(%, 매년 5월): ('11)58.5 ('12)59.0 ('13)5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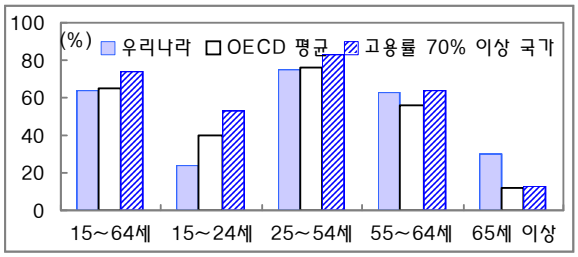
□ **(성별) 여성** 고용률이 **OECD 평균** 및 **고용률 70% 이상** 국가보다 **낮은 수준**이며, 특히 **25~54세**의 경우 격차가 더욱 확대

* 15~64세 여성 고용률('12년, %): (우리나라)53.5 (OECD)57.0 (고용률 70% 이상 국가)69.3
* 25~54세 여성 고용률('12년, %): (우리나라)61.2 (OECD)66.3 (고용률 70% 이상 국가)77.8

○ 시간선택제 일자리, 유연근로 형태 미흡 등에 따른 **장시간 근로 관행, 보육서비스 부족** 등으로 **경력단절여성이 광범위**하게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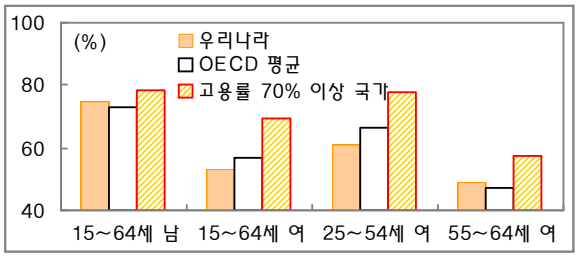
* 연간 근로시간('12년): (우리나라)2,092 (미국)1,798 (일본)1,765 (영국)1,637 (독일)1,317
* 경력단절사유(30대 기준, '13.4월, %): (결혼)39.5 (육아)34.0 (임신·출산)23.8 (자녀교육)2.8

연령대별 고용률 비교('12년)



* 자료: 통계청, OECD

성별 고용률 비교('12년)



* 자료: 통계청, OECD

□ **(시사점) 고용률 제고**를 위해서는 주요국에 비해 고용률이 부진한 **청년, 여성의 고용여건 개선**이 시급

* 15~24세 연령층과 중장년 여성(25~54세)의 고용률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높일 경우 15~64세 고용률은 4.3%p(각각 2.6, 1.7%p) 상승('12년 기준)

○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충, **육아휴직제도, 일-학습 듀얼 시스템** 확대 등으로 청년·여성 고용을 뒷받침할 필요

작성자: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 이재화 사무관(044-215-2734)

3. 가계소득과 임금 | 완만한 증가세

1 (가계소득) 1/4분기 크게 둔화되었던 증가세가 최근 점차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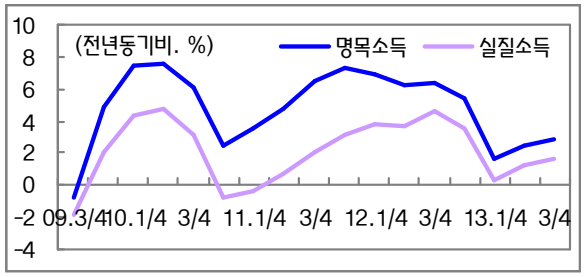
○ 고용여건 개선 등으로 **근로소득**이 **가계소득 증가세**를 견인하는 가운데, **물가안정**으로 **실질소득 증가세**도 **점차 확대**

* 명목소득(전년동기비, %): ('12.4/4)5.4 ('13.1/4)1.7 (2/4)2.5 (3/4)2.9
실질소득(전년동기비, %): ('12.4/4)3.6 ('13.1/4)0.3 (2/4)1.3 (3/4)1.6
근로소득(전년동기비, %): ('12.4/4)7.3 ('13.1/4)2.5 (2/4)3.4 (3/4)3.3

○ 저소득층의 소득이 양호한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소득 5분위 배율**이 **추세적으로 개선**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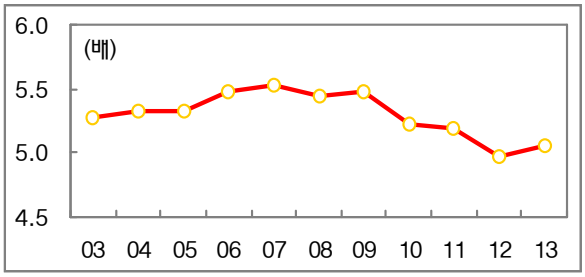
* 금년 3/4분기는 2, 3, 4분위 등 중산층을 중심으로 소득이 증가

분기별 가계소득 증가율



* 자료: 통계청

소득 5분위 배율(매년 3/4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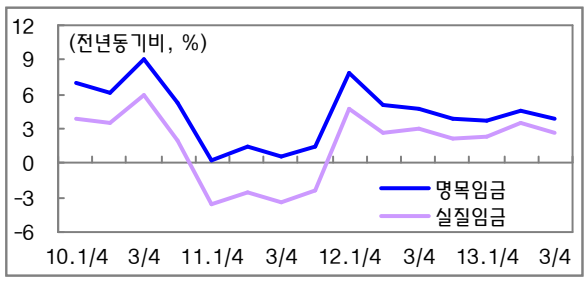
* 자료: 통계청, 2인 이상 비농가

2 (임금) 올해 들어 완만한 증가세를 지속

○ **임시일용직** 임금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늘면서** 상용직과 임시일용직간의 임금격차가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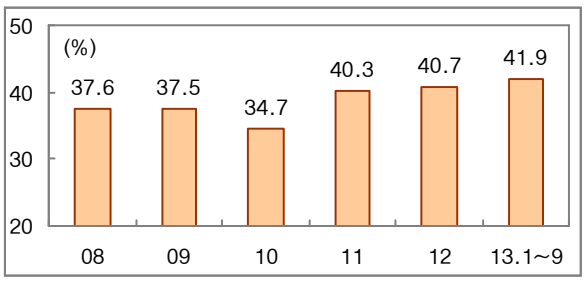
* 상용직 증가율(전년동기비, %): ('12.4/4)4.0 ('13.1/4)3.8 (2/4)4.3 (3/4)3.8
임시일용직 : ('12.4/4)4.0 ('13.1/4)5.5 (2/4)8.7 (3/4)8.4

임금 상승률



* 자료: 고용노동부

상용직 대비 임시일용직 임금 비중



* 자료: 고용노동부

4. 물가와 부동산 가격 | 물가안정세 지속
주택가격은 매매가 안정, 전세가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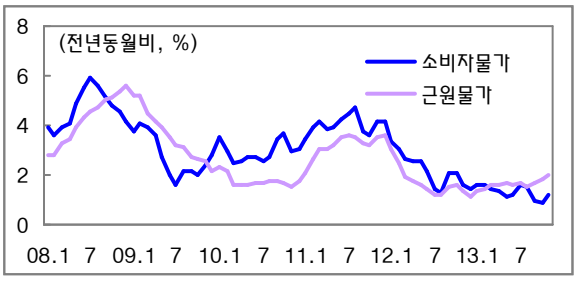
1 **(소비자물가)** 금년 들어 1% 내외의 **안정세 지속**

○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도 **1%대 안정**

○ 최근의 낮은 물가 상승세는 **수요·공급** 및 **제도적 요인**에 의한 **상승압력이 동시에 완화**된 데 기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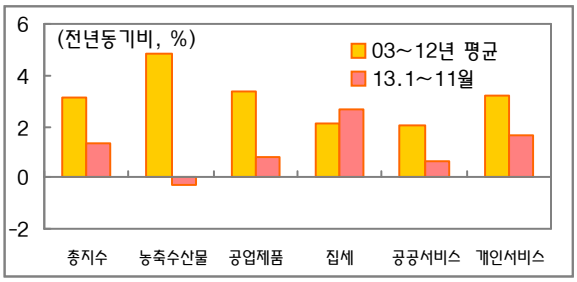
※ 최근 글로벌 물가동향 분석: 참고 7

소비자물가



* 자료: 통계청

품목별 가격 상승률



* 자료: 통계청

2 **(주택가격) 주택 매매가격과 거래량**은 취득세 한시감면 종료(6월말) 이후의 부진에서 최근 점차 **회복조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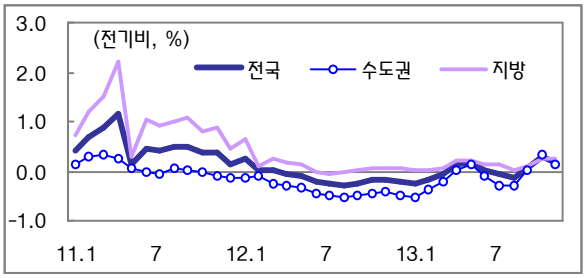
* 주택거래량(전년동기비, %): ('13.1/4)△6.9 (2/4)55.5 (3/4)△1.1 (10~11월)26.5

○ 8.28 대책 발표 이후 **수도권 매매가격 하락세가 진정**되는 가운데, **지방도 상승세 지속**

○ 전세가격은 **전세→월세 전환**, 하반기 입주물량 감소 등에 따른 **전세공급 감소** 등으로 **상승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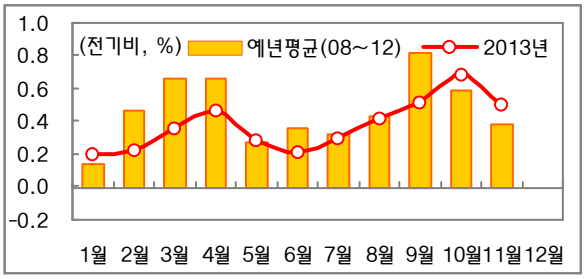
※ 최근 전월세 시장 동향과 시사점: 참고 8

주택매매가격



* 자료: 한국감정원

주택전세가격



* 자료: 한국감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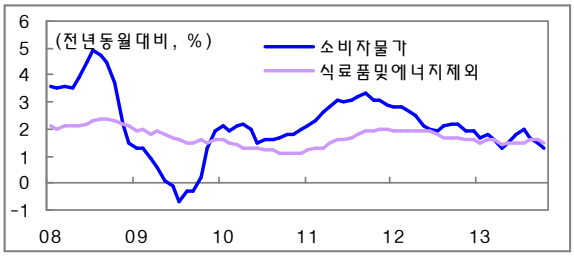
[참고 7] 최근 글로벌 물가동향 분석

【주요 선진국 물가】

□ **(현황)** '13.1~10월중 **OECD 국가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2.3%)보다 낮은 **1.6%**(전년동기비)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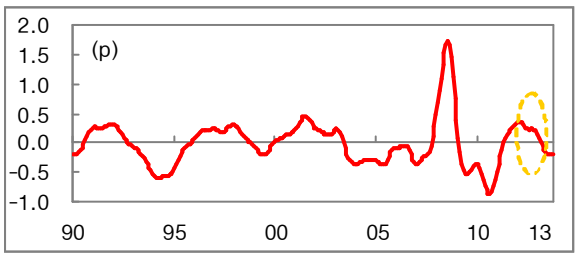
○ 순환국면 상 '12.1월을 정점으로 **하강 국면**이 진행 중

OECD國 소비자물가 상승률



* 자료 : OECD

인플레이션 순환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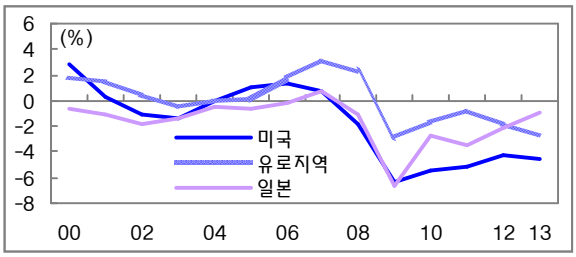
* OECD 경기순환주기 추출법 원용

□ **(원인)**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수요측 압력**이 **약화**된 가운데, 유가 등 **공급측 요인도 물가안정**에 **기여**

○ **(수요측면) GDP갭**은 여전히 **마이너스**를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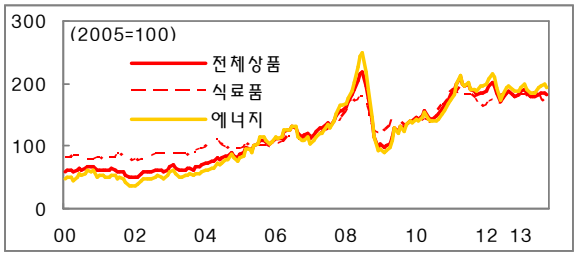
○ **(공급측면) 신흥국 경기둔화** 등으로 **국제원자재 가격** 안정

주요 선진국 GDP갭률



* 자료 : IMF

IMF 상품(품목별)지수



* 자료 : IMF

□ **(향후 전망)** 완만한 경기회복, 국제원자재 가격 안정세 등으로 **안정세 지속** 전망

* 선진국 성장률/물가상승률 전망(IMF, %): ('13)1.2/1.4 → ('14)2.0/1.8

○ **(수요측면)**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GDP갭이 지속**되면서 수요측면의 **상승압력이 크지 않을** 전망

○ **(공급측면)** 국제원유 생산량 증가*, 국제곡물 가격안정** 등으로 공급측면의 **상승압력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非OPEC공급(EIA, 백만b/d): ('12)52.67 ('13)54.16 ('14)55.93

** '14년 가격전망(WB, 전년대비, %): (옥수수)△0.8 (콩)△1.9 (밀)△1.6

【우리나라 물가】

□ **(현황)**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2.11월 이후 **13개월 연속 전년동월 대비 1% 내외 안정세** 지속

* 물가상승률(전년동기비, %): ('13.1/4)1.6 (2/4)1.2 (3/4)1.4 (10월)0.9 (11)1.2

□ **(원인) 수요·공급·제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예년('03~'12년 평균 3.1%)에 비해 낮은 물가상승률을 기록

○ **(수요)**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수요측 압력요인 약화**

* 수요측 압력 약화가 소비자물가를 '09~'12년 대비 △0.78%p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KDI, '13.11월)

- '12년부터 **GDP갭이 (-)로 전환**되면서, 내수여건에 민감한 **개인서비스**의 **가격 상승률**이 크게 **둔화**

* GDP갭률(KDI·한은, %): ('11)0.5~1.0 ('12)△0.5~△1.0 ('13)△1.0~△1.5
* 개인서비스 가격 상승률(%): ('09)2.8 ('10)2.2 ('11)3.7 ('12)1.1 ('13.1~11)1.6

○ **(제도)** '13.3월부터 시행된 **무상보육·급식 확대** 등 제도적 요인으로 **소비자물가 하락** 효과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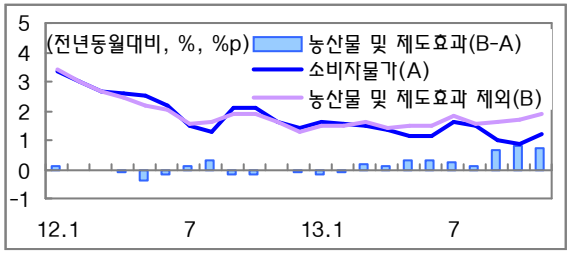
○ **(공급) 국제원자재·국내 농산물 가격** 등 공급측 요인도 **안정세**

- 밀·옥수수·대두 등 **국제곡물 가격**과 **국제유가 안정**이 국내 가공식품·석유류 등의 가격 안정에 기여

- **농산물**은 예년의 경우 소비자물가 불안요인이었으나, 금년에는 오히려 **물가 하락요인**으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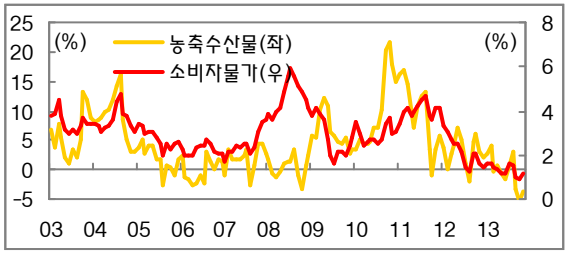
* 농축수산물 가격상승률(%): ('03~'12)4.8 ('11)9.2 ('12)3.2 ('13.1~11월)△0.3

'12년 이후 농산물·제도 물가하락 효과



* 자료: 통계청

농축수산물 및 소비자물가 추이



* 자료: 통계청

□ **(시사점)** 우리나라 물가도 수요·공급측 압력이 완화되면서 **선진국의 물가 추이와 대체로 유사**한 흐름

○ 다만, 제도적 요인과 국내 농산물 가격 하락 등 **특이요인이 가세**하면서 **물가상승률 둔화 폭이 상대적으로 확대**

작성자: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 이복원 사무관(044-215-27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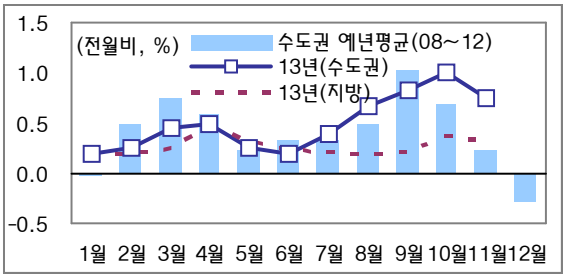
[참고 8] 최근 전월세 시장 동향과 시사점

1 **(동향) '13.1~11월 전국 전세가 상승률은 4.3%**로 예년(5년평균 5.2%)보다 높지 않으나, 수도권은 **7월 이후 상승세가 확대**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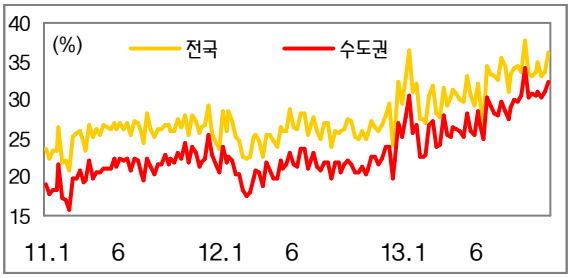
○ 올해 들어 아파트 전월세 거래 중 **월세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아파트 전세가가 전세가격 상승을 주도**

* '13.1~11월 주택유형별 전세가 상승률(%): (아파트)6.0 (연립)2.7 (단독)0.9

수도권 전세가 상승률 추이



아파트 전월세 거래 중 월세비중



○ **월세가격**은 소형 주택 공급확대, 전세 → 월세 전환 등에 따른 공급 증가로 **하향 안정세 유지**

* 주택 월세가격(%, 전기비): ('13.1/4)0.0 (2/4)△0.4 (3/4)△0.4 (10)△0.1 (11)△0.1

2 **(원인)** 최근 전세가격 상승은 **전세 → 월세 전환, 매매시장 부진, 입주물량 감소** 등에 따른 **전세 수급불균형**에 주로 기인

○ **(공급) 저금리, 주택매매가격 상승 기대 감소** 등에 따른 임대인들의 월세 선호현상 심화로 **전세공급 물량 감소***

* '13.7~11월 서울 아파트 전세거래량은 전년동기비 △19.3% 감소, 월세거래량은 26.2% 증가

- 금년 하반기에는 **수도권 주택 입주물량**이 **감소**(전년동기비 △29.3%)하면서 **전세가 상승압력**이 확대

※ 지역별 전세가 상승률 비교

○ 전세시장중심인 수도권 등을 중심으로 전세가가 크게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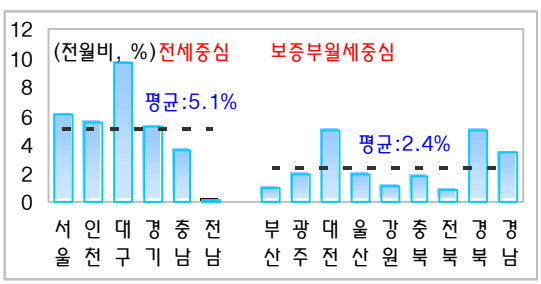
○ 전세중심 지역의 임차인 전세 선호(월세 기피) 경향은 유지되나, 임대인의 '전세→월세화'로 수급불균형 심화 추정

지역별 임대시장 구조

	전세중심 지역*
'08년 (12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충남, 전남, 경북, 경남
'12년 (6개)	서울, 대구, 인천, 경기, 충남, 전남

* 국토부 주거실태조사('08, '12년)
* 임차가구 중 전세가구 비중이 가장 큰 지역

'13.1~11월 지역별 전세가격 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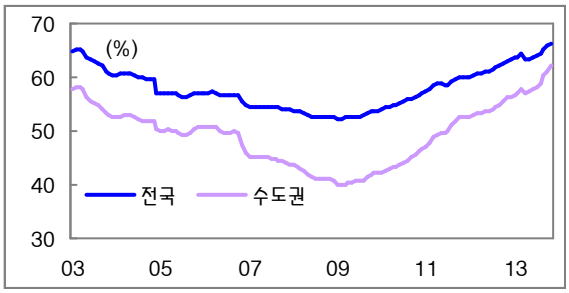
○ **(수요) 낮은 전세금 대출금리**(4%대), **높은 전월세 전환률**(6~10%) 등을 감안 임차인들은 **전세 선호 지속**

- 최근 **전세-매매가간 격차가 좁혀졌으나**, 자가보유에 비해 낮은 주거비용*, 집값 상승 기대 저하 등으로 **매매수요가 전세수요로 전환****

* 주거비 수준 추정(KDI, 국토연) : 월세 > 자가 > 전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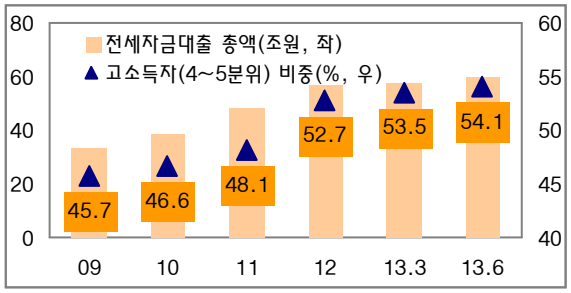
** 최근 주택구입가능계층(소득 4~5분위)의 전세자금대출액이 증가하는 가운데, '13년중 중고가(3~5억원대) 전세의 상승률이 더 높게 상승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



* 자료: KB

고소득층 전세자금대출액 및 비중



* 자료: 한국은행

3 **(평가 및 전망)** 전세 수급 불균형에 따른 **전세가격 상승**은 구조적인 현상으로 **당분간 지속 가능성**

○ 대내외 경제여건 등을 감안 **과거에 비해 금리가 낮은 수준**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전세 → 월세 전환 지속 전망***

*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일시반환의 어려움, 전세제도의 장점 등을 감안시 급격한 월세화보다는 보증부월세 증가 예상

○ 다만, **주택 매매가격 하락세가 진정**될 경우, 전세수요의 매매 전환으로 **전세가 상승압력 둔화 가능성**

4 **(시사점) 전세에서 월세**로의 **임대시장 변화유도**와 **전세가격 상승** 등에 대응하여 **임대주택 지속 공급** 등 **시장안정 노력** 강화

○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 민간자본 참여를 통한 건설임대 공급 확대, 주택임대관리업 육성 등 **임대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

○ **전세수요의 매매수요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규제정상화, 무주택자 구입자금 지원 강화 등 **주택시장 정상화 노력 지속**

○ 아울러, 월세 전환에 따른 **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 지원 강화**

* '14년부터 월세소득공제 확대, 주택바우처 제도 본격 시행 계획

작성자: 경제정책국 부동산정책팀 백누리 사무관(044-215-2851)

5. 수출입과 경상수지 | 수출 완만한 회복, 수입 감소 경상수지 흑자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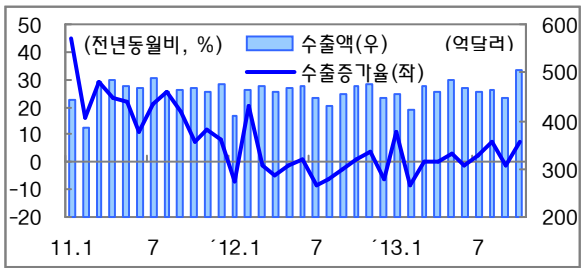
□ **(수출)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에 따른 **글로벌 수요 확대**로 **수출 증가세**가 점차 **확대**

* 수출증가율(전년동기비, %): ('13.1/4)0.4 (2/4)0.7 (3/4)2.7 (10~11월)3.7

○ **일평균 수출**도 월별 등락은 있으나 대체로 **'12년 4/4분기 이후 증가세**가 이어지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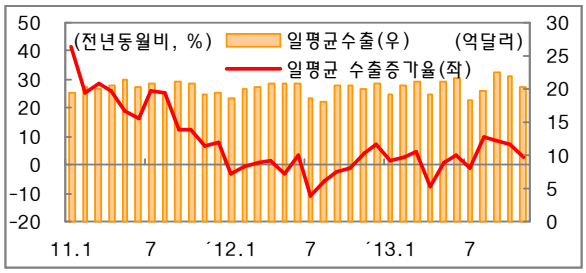
* 일평균수출 증가율(전년동월비, %): ('13.7)△1.5 (8)10.0 (9)8.4 (10)7.3 (11)2.4

수출 동향



* 자료: 관세청

일평균 수출



* 자료: 관세청

○ **품목별**로는 **반도체·휴대폰** 등 IT품목이 수출 **증가를 견인**하는 가운데 최근 들어 **선박, 자동차** 수출도 **점차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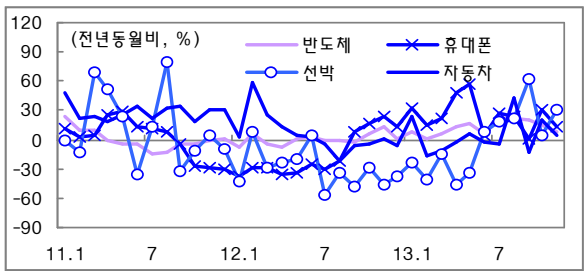
○ **지역별**로는 **對中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최근 선진국 경기회복으로 **對美·對EU** 수출도 **회복**

- 다만, **對日수출**은 엔화약세 등으로 **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對아세안 수출도 점차 둔화**

* 엔/달러 환율: ('12.말)86.5 ('13.5)100.9 (7)99.7 (9)99.3 (11)99.9 (12.20)10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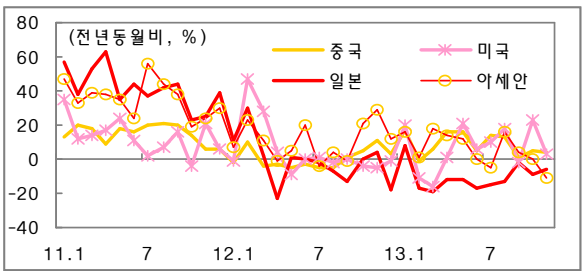
※ 일본 수출동향과 엔화약세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참고 9

품목별 수출



* 자료: 관세청

지역별 수출



* 자료: 관세청

2 **(수입)** 유가하락 등으로 감소세가 이어졌으나, 하반기 이후 **완만한 내수회복** 등으로 **점차 개선**

* 수입증가율(전년동기비, %): ('13.1/4)△3.0 (2/4)△2.8 (3/4)0.3 (10~11월)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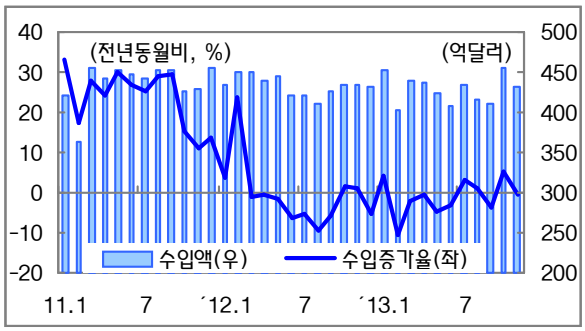
○ **원자재**는 국제유가 하락 및 석유제품 수출부진이 이어지면서 **원유수입을 중심으로 감소세 지속**

* 원유수입증가율('12.1~10→'13.1~10, %): 7.7→△8.1, 도입단가($/B): 113.2→108.1

○ **소비재, 자본재**는 민간소비 및 설비투자가 점차 개선되면서 **'13.2/4분기 이후 증가세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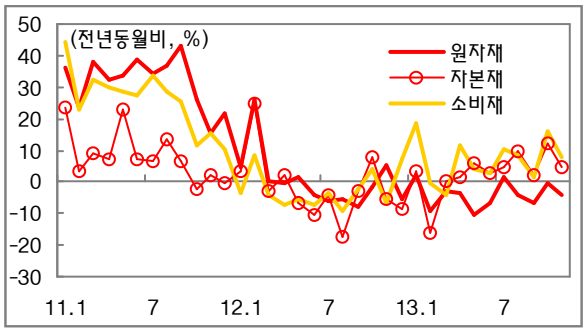
* 민간소비 증가율(전년동기비, %): ('13.1/4)1.5 (2/4)1.8 (3/4)2.1
설비투자 증가율(전년동기비, %): ('13.1/4)△11.9 (2/4)△4.6 (3/4)1.5

수입 동향



* 자료: 관세청

용도별 수입증가율



* 자료: 관세청

3 **(수출입차)** 1~11월 수출입차(누계기준)는 405.2억불로 **예년에 비해 흑자폭이 크게 확대**

○ 완만한 수출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유가하락 등으로 수입이 감소하면서 **흑자세를 지속**

* 1~11월 누계 기준 수출증가율 1.7%, 수입증가율 △1.1%

통관 수출입 동향

	2012				2013					
	연간	2/4	3/4	4/4	1/4	2/4	3/4	10월	11월	1~11월
수출(억불)	5,478.7	1,401.3	1,331.3	1,397.7	1,353.3	1,411.7	1,367.9	504.9	479.0	5,116.7
(증가율%)	△1.3	△1.7	△5.8	△0.4	0.4	0.7	2.7	7.2	0.2	1.7
수입(억불)	5,195.8	1,304.3	1,256.5	1,298.3	1,296.8	1,267.9	1,259.7	456.1	431.0	4,711.5
(증가율%)	△0.9	△2.9	△6.9	△1.1	△3.0	△2.8	0.3	5.1	△0.6	△1.1
수지(억불)	282.9	97.0	74.7	99.4	56.5	143.8	108.1	48.8	48.0	405.2

* 자료: 관세청

4 **(경상수지) 상품수지 흑자가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가운데, **서비스수지도 흑자세**가 이어지면서 **경상수지 흑자폭 확대**

○ **상품수지**는 세계경제 회복 등으로 **수출 증가세**가 이어진 반면, **수입은 원자재 가격하락** 등으로 **감소**하면서 **흑자폭 확대**

○ **서비스수지**는 지난해에 비해 **운송, 건설서비스 수지 등이 악화**되었으나, **사업서비스수지가 크게 개선**되면서 **흑자폭 확대**

- **운송수지**는 화물운임 하락, 외국선사와의 경쟁심화 등으로 화물운임수입이 크게 줄면서 **흑자 폭 축소**

* 화물운임지수('12/'13.상): (BDI; 건화물)918/843 (CCFI; 컨테이너):1,164/1,096

- **건설서비스 수지**는 '11년 해외건설 수주 감소영향으로 건설서비스수입이 감소하면서 **흑자 폭 축소**

* 평균 공사기간(2~3년) 감안시 '13년 건설서비스 수입은 '10.하반기~'11년 수주물량 영향
* 해외건설 수주(억달러): ('07)398 ('08)476 ('09)492 ('10)716 ('11)591 ('12)649

- **사업서비스 수지**는 **해외현지생산 확대** 등으로 중계무역 서비스* 수입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적자 폭이 크게 감소**

* 우리나라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취득한 재화를 다시 다른 비거주자에 대해 전매하는 것 (상품의 취득원가와 재판매가의 차이 계상)
→ 국제수지 통계 개편으로 서비스수지에서 상품수지로 이전 계획('14.3월)

○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이자 등 투자소득 감소로 **흑자가 축소**되었으나, **이전소득수지**는 **적자 축소**

경상수지 동향

	'12년				'13년				
	연간	2/4	3/4	4/4	1/4	2/4	3/4	10월	1~10월
경상수지(억달러)	480.8	134.4	154.9	162.3	99.7	198.0	190.1	95.1	582.6
- 상품수지	398.2	98.4	123.0	143.1	93.4	158.4	166.6	70.3	488.3
- 서비스수지	57.3	30.0	25.6	11.3	△4.8	37.6	13.3	16.5	62.6
(여행수지)	△71.5	△8.3	△23.9	△21.2	△20.4	△14.3	△24.0	△3.3	△62.2
(건설서비스수지)	163.5	35.0	49.1	43.5	40.7	37.6	32.1	14.3	124.7
(운송수지)	113.4	36.2	32.5	22.4	17.6	25.7	19.6	5.8	68.7
(사업서비스수지)	△117.9	△26.2	△26.1	△24.5	△30.2	△9.8	△9.7	△0.0	△49.8
- 본원소득수지	57.2	11.1	11.5	16.9	13.8	6.2	15.7	7.9	37.9
- 이전소득수지	△31.9	△5.2	△5.2	△9.1	△2.6	1.4	△5.4	0.5	△6.2

* 자료: 한국은행

[참고 9] 일본 수출동향과 엔화약세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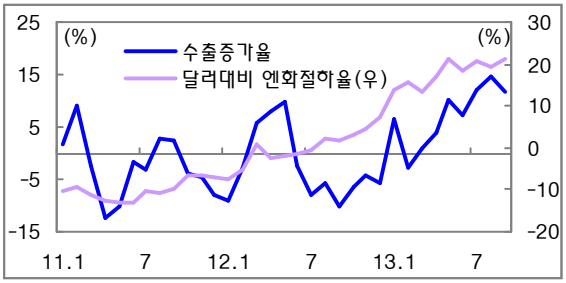
1 **(일본수출 동향)** 세계경제가 완만하게 회복되는 가운데 엔화 약세가 지속되면서 **일본의 對세계수출**(엔화기준)**은 빠르게 증가**

○ '13.1/4분기 이후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며, **1~10월 누계기준 전년동기대비 8.1% 증가**

○ 다만, **최근 일본수출 개선은** 수출물량 증가('13.1~10월 △2.6%)보다는 엔/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수출단가 상승**(10.9%)**에 주로 기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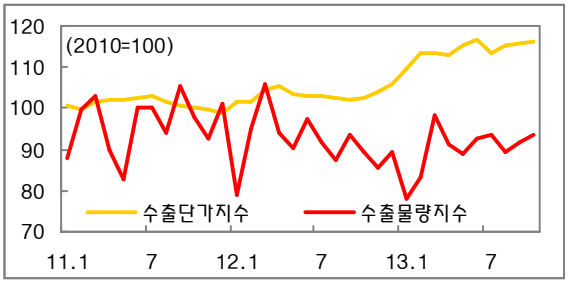
* 엔/달러 상승률(22.0%)과 달러 결제비중(53.7%)을 감안할 때 일본기업의 가격인하 움직임이 아직 본격화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

일본의 수출동향(엔화기준)



* 자료 : 일본 재무성

일본 수출물량지수, 단가지수



* 자료 : 일본 재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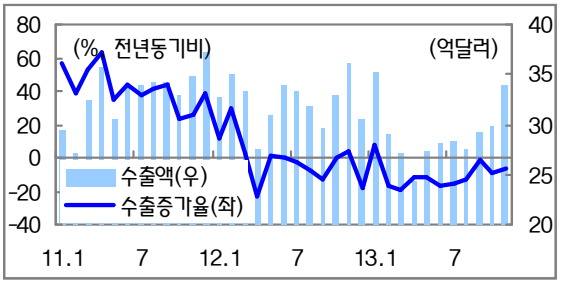
2 **(엔화약세 영향)** **對日수출을 제외**하고는 세계경제 회복 등으로 **엔화약세 영향이 제한적**이었으나, 일부 품목의 경우 **점차 가시화**

○ **(對日 수출)** 휴대폰, 철강 등을 중심으로 **對日 수출이 크게 감소**

* 對日 수출은 엔화결제 비중('13.1~9월 46.2%)이 높아 엔화약세 영향이 직접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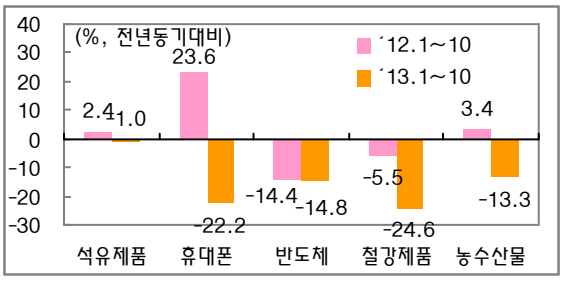
* 對日 수출증가율(전년동기비, %): ('13.1/4) △9.7 (2/4) △13.6 (3/4) △10.3 (10~11월) △7.6

對日 수출동향



* 자료 : 관세청

품목별 對日 수출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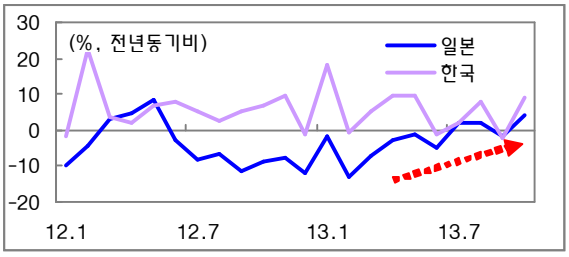


* 자료: 관세청

○ **(對세계 수출) 아직까지 영향이 제한적**이나, 일본제품의 가격 경쟁력 제고 등으로 일부 품목을 중심으로 **엔화약세 영향이 점차 가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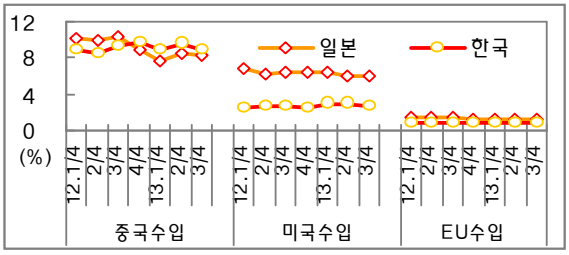
- 최근 일본 수출물량이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나, 우리 수출물량도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대체로 유지**

한국, 일본의 수출물량증가율



* 자료 : 한국은행, 일본 재무성

주요국 수입시장 점유율



* 자료 : 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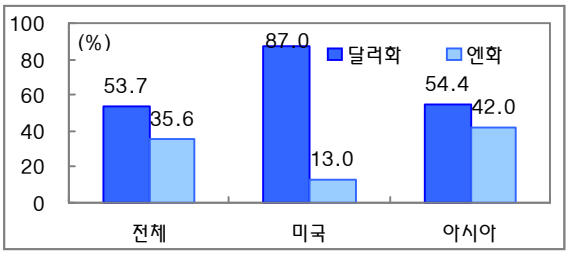
- 다만, 엔화결제 비중이 높은 **對아시아 주요 수출품목** 중심으로 **일본제품의 가격경쟁력이 제고**되면서 우리 제품과 **경쟁이 심화**

* 엔화약세 상황에서 엔화결제 시 수입국 기준의 제품가격은 하락해 특별히 수출단가를 낮추지 않더라도 가격 경쟁력이 제고되는 효과

- 그 결과 일본과 우리의 對아시아 주요 수출품목인 **철강, 석유제품** 등에서 일본과 달리 **수출물량이 빠르게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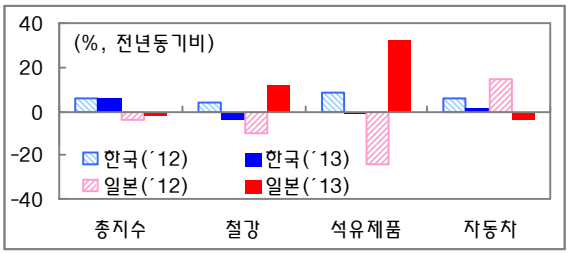
* 일본 주요 수출품목의 지역별 수출비중(%, '13.1~10월, 아시아 vs 미국)
: (철강) 57.6 vs 4.3, (석유제품) 38.9 vs 4.9, (자동차) 9.4 vs 32.8

일본 수출통화 결제비중



* 자료 : 일본 재무성

주요품목별 한일 수출물량증가율



* 자료 : 한국은행, 일본 재무성 (1~10월 기준)

3 **(전망)** 엔화약세 지속 시 **우리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확대** 우려

○ 향후 소비세율 인상('14.4월) 등에 따른 日정부의 **추가 양적완화 가능성**이 높아 **對日수출은 부진**이 **지속**될 가능성

* 엔/달러 환율 전망(IB평균, 12월): (6개월 후)104.6 (12개월 후)110.1

○ 특히, **日기업의 영업이익 증가**로 **가격인하 여력이 확대**되면서 對日뿐만 아니라 **주요 수출시장**에서도 **경쟁 심화 예상**

* 日기업(제조업) 영업이익 증가율(%, 전년동기비, 일본법인기업통계조사)
: ('12.3/4) △9.9 (4/4) △0.9 ('13.1/4)31.6 (2/4)35.3 (3/4)45.0

작성자: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 서진호 사무관(044-215-2732)

6. 금융시장과 자금사정 | 금융시장 변동성 지속

□ **(금융시장) 美 FOMC 회의 결과, 주요국 경제지표·정책 발표** 등 대외요인에 따라 **등락을 반복**

○ **주가**는 **글로벌 증시** 및 **국내외 경기동향**에 따라 변동하였으며, 최근 美 **양적완화 축소 결정으로 관련 불확실성은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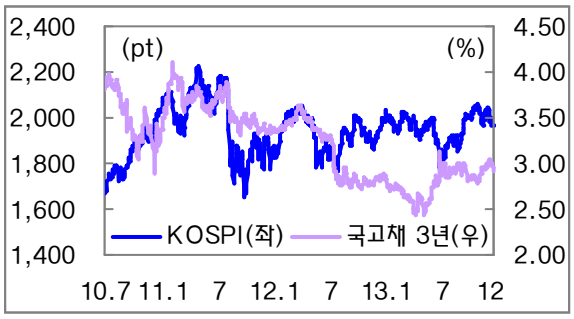
- **외국인 주식자금**은 **11월중 순매도로 전환**되었으며, 美 **양적완화 축소 속도** 등에 따라 자본유출입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

※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과 평가: 참고 10

○ **국채금리**는 **주요국 경기지표 개선** 등으로 국제 금리와 함께 상승세로 전환된 이후 **양적완화 축소시행으로 상승압력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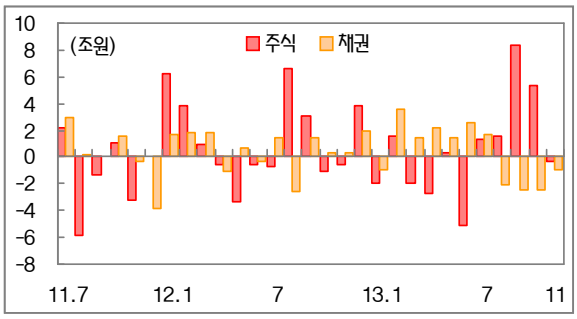
- **외국인 채권자금**은 주요국 금리 상승에 따른 **차익거래 유인 감소** 등으로 **8월 이후 순매도 지속**

주가·금리



* 자료: 한국은행

외국인 주식·채권순매수



* 자료: 금융감독원

□ **(자금시장) 전반적인 기업 자금조달 상황은 양호**한 가운데, **부도업체수·기업대출 연체율** 등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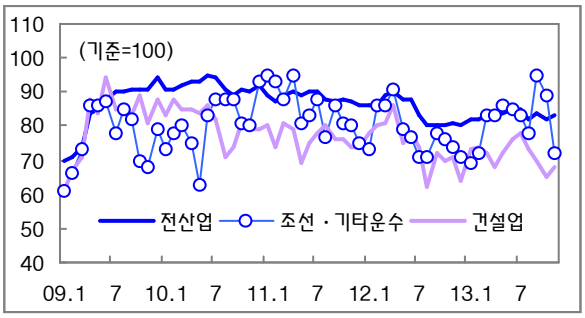
○ 올해들어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규모가 전년대비 크게 **증가**

* 은행 중소기업 대출 증감(조원): ('11)11.3 ('12)5.8 ('13.1~11)32.2

○ 다만, 일부 기업의 유동성 위기 등으로 **취약업종·비우량 등급 회사채 발행의 어려움**이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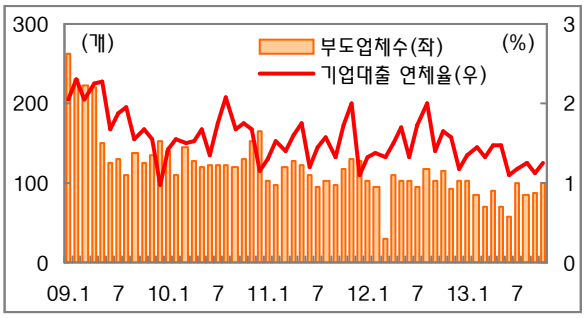
※ 회사채시장 동향과 평가: 참고 11

자금사정 BSI 추이



* 자료: 한국은행

부도업체수와 기업대출 연체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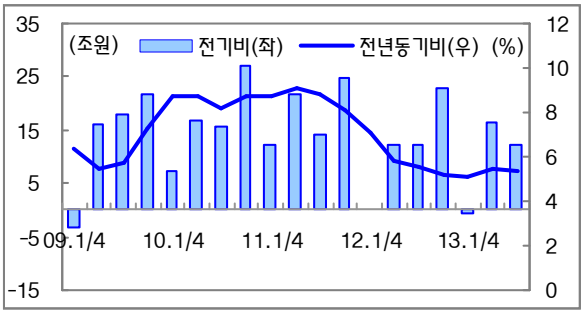
* 자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3 (가계부채) '12년 이후 가계부채 증가세가 점차 둔화되는 추세

○ 주택담보대출에서 고정금리 대출과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면서 **대출구조도 점진적으로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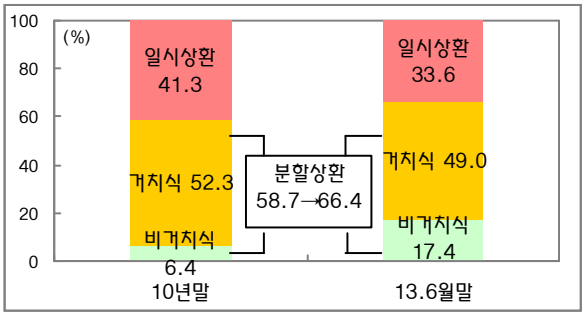
* 고정금리 대출비중(%): ('10말)0.5 → ('12말)14.2 → ('13.6월말)17.3
*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비중(%): ('10말)6.4 → ('12말)13.9 → ('13.6월말)17.4

가계신용



* 자료: 한국은행

대출구조별 비중



* 자료: 금융감독원

○ **가계부채 수준**이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높으나**, 전반적인 가계 건전성과 금융회사 충격흡수 능력이 양호하여 **관리가능**한 수준

* 가계부채/GDP비율('12년, %): 韓 91, 美 84, 英 99, 日 82('11년), OECD 평균 76
* 고소득계층(4~5분위)이 전체 부채의 70% 보유('13년 가계금융조사)
* BIS비율(은행,%): ('08말)12.3 ('10말)14.6 ('12말)14.3 ('13.3월말)14.0 (6월말)13.9

○ 그간 상승해 오던 **연체율은** 은행들의 지속적인 연체정리 노력 등으로 **다시 안정화**되는 모습

* 은행 가계대출 연체율(%): ('10말)0.61 ('11말)0.67 ('12말)0.81 ('13.3월)0.96 (9월)0.85

○ 다만, 향후 **경기여건 및 금리변동**에 따라 저소득층·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채무부담이 확대**될 가능성

[참고 10]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과 평가

1 **(동향) 외국인은 하반기 이후 주식투자를 확대**하면서 **'13년 중** 유가증권에 **7.1조원을 순투자**

○ **(주식) 외국인 자금**은 **상반기 순매도** 추세에서 **하반기** 들어 최장기간(44일간, 8.23~10.30) **순매수를 기록**하며 연중 **총 4.2조원을 순매수**

- 우리나라의 **양호한 경제 기초여건, 세계경제 회복 기대** 등으로 하반기 중 **장기간 순매수가 지속**

- 다만, 11월 이후 **양적완화 축소 우려**, 대규모 매수에 따른 **투자 여력 축소** 등으로 **순매도 전환**

○ **(채권)** 외국인은 **상반기**에 **10.2조원을 순투자**하였으나 **'13.8월 이후 순유출**을 지속하면서 **'13년 중 총 2.9조원을 순투자**

- 8월 이후 외국인 **채권투자 자금**은 **국제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순유출**

< 외국인 투자자 주식·채권 거래 현황(단위: 조원, %) >

구 분	합계		주식		채권	
	순투자*	보유금액	순매수*	보유금액	순투자	보유금액
'10년	39.8	460.6	22.9	386.4	16.9	74.2
'11년	△ 2.5	434.5	△ 9.6	351.5	7.1	83.0
'12년	25.0	502.6	17.6	411.6	7.4	91.0
'13년	7.1	519.5	4.2	426.0	2.9	93.5
1~6월	0.2	479.8	△10.0	378.6	10.2	101.2
7~11월	9.8	537.7	16.2	442.6	△ 6.4	95.1
12월	△ 2.9	519.5**	△ 2.0	426.0**	△ 0.9	93.5**

* '13.11월 이전: 결제기준, '13.12월 이후: 체결기준 ** 12.12일 기준

2 **(평가)** 금년중 **외국인 자금**은 **美 양적완화 축소** 논의 동향, **국내외 경제지표** 등의 영향으로 유출입 변동*이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순투자** 지속

* 상반기: 주식 순매도, 채권 순투자 / 하반기: 주식 순매수, 채권 순유출

○ 반면, 다른 **아시아 신흥국***의 경우 **美 양적완화 축소 우려**로 **외국인 자금이 순유출**되는 모습

* '13.하반기 아시아 외국인 증권투자(억달러): 인도 △106.4 인니 △68.6 필리핀 △10.3

○ 향후 **외국인 증권투자**는 **美 양적완화 축소**가 시작된 만큼 **축소 속도와 규모, 여타 신흥국과의 차별화 여부** 등에 영향 받을 전망

작성자: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 최 연 사무관(044-215-2755)

[참고 11] 회사채시장 동향과 평가

1 **(동향)** 전반적으로 회사채시장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일부기업 유동성 위기에 따라 **비우량·취약업종 중심으로 어려움이 지속**

○ **(발행시장) AA등급 이상이 발행을 주도**하는 가운데, **BBB등급 이하 및 취약업종의 회사채 발행은 크게 부진**

- 10월 이후 전체 회사채 수요예측 참여비율이 상승하고 미매각률이 하락한 반면, **BBB등급 이하의 미매각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

- **A등급의 경우** 등급 내 **취약업종에 대한 차별화**가 나타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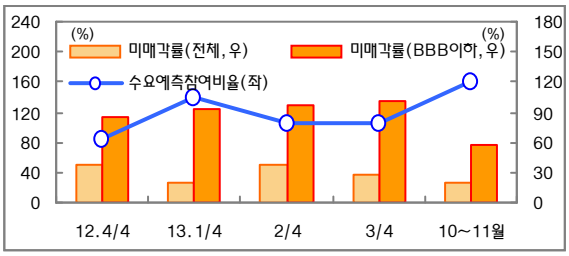
* 9월말이후 A등급 회사채 수요예측참여비율(%): (非취약)134.7 (취약)15.2

등급별 회사채 월평균 발행 규모(조원)

(조원)	'12	'13			
		1/4	2/4	3/4	10~11월
전체	4.3	3.3	3.2	2.7	3.5
AA이상	2.4	2.4	2.2	1.8	2.8
A	1.3	0.8	0.6	0.7	0.6
BBB이하	0.5	0.2	0.4	0.2	0.1

* 자료: 한국은행

수요예측 및 미매각률 현황(%)



* 자료: 금융투자협회

○ **(유통시장)** 전반적으로 우량등급 회사채 신용스프레드는 축소된 반면, **A등급 이하 및 건설 등 취약업종의 스프레드는 상반기 대비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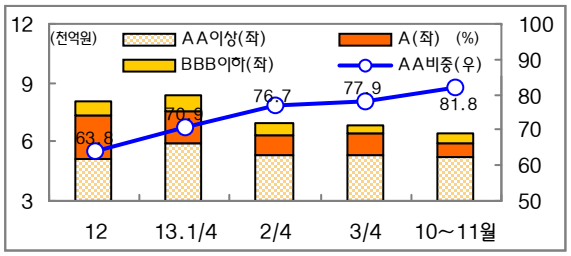
- 등급별 거래비중은 A등급 거래량이 줄면서 **우량등급으로 쏠림 심화**

등급별 신용스프레드(국고채대비, bp)

구 분	AA-	A0	BBB+	건설	전자
'12년말	48	81	357	183	50
'13.6말(A)	46	87	368	187	53
10말	47	94	376	198	54
11말(B)	45	93	375	193	52
스프레드 변화(B-A)	△1	+6	+9	+6	△1

* 자료: 한국은행

회사채 유통 규모(일평균)



* 자료: 코스콤

2 **(평가)** '12년 하반기 이후 **회사채 시장의 양극화가 지속**되는 만큼 **기업 자금조달 상황에 대해 면밀히 점검**할 필요

○ 내년도 **상반기중 취약업종 회사채 만기도래가 증가**하는 가운데 美 양적완화 축소 등으로 **비우량·취약업종 기업의 어려움 가중 우려**

* 취약업종 회사채 만기도래 규모(조원): ('13.상)4.1 (하)4.1 ('14.상)5.2 (하)2.4

○ **취약업종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회사채시장 정상화 방안**의 **차질 없는 시행** 등을 통해 일시적인 유동성 애로는 완화해 줄 필요

작성자: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 김성철 사무관(044-215-2753)

7. 외환시장 | 환율 변동성 확대, 외채구조 개선추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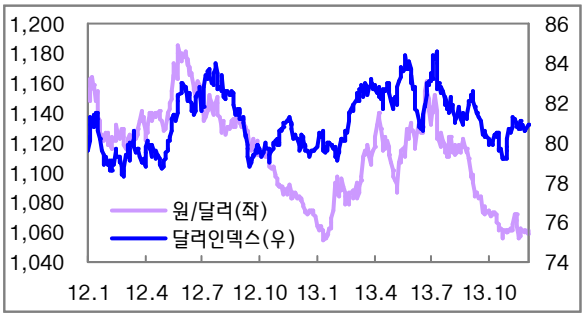
1 (환율) 글로벌 달러화 약세, 외국인 자금 유입 등으로 하락

○ **원/달러 환율**은 8월말 이후 **글로벌 달러화 약세** 속에 **외국인 주식자금 유입, 경상수지 흑자** 등 **수급상 하락압력**이 확대되면서 **1,050원대로 하락**

- 다만, 12월 FOMC **양적완화 축소결정**으로 1,060원대로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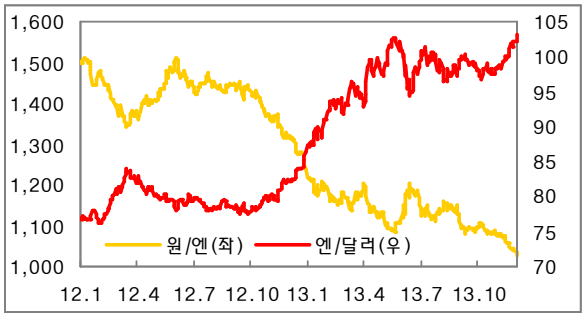
○ **원/엔 환율**은 BOJ의 추가 양적완화 기대감, 美 양적완화 축소로 **엔화 약세가 심화**되면서 '08년 이후 최저수준인 **1,020원대로 하락**

원/달러 환율, 달러화인덱스



* 주: 달러화인덱스는 주요 6개국 통화대비 달러화의 평균가치
* 자료: 한국은행, Bloomberg

원/엔, 엔/달러 환율



* 자료: 한국은행, Bloomberg

2 (외채) 총외채는 '13.3/4분기말 4,110억불, 전년말 대비 16억불 증가

○ **단기외채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전년말 대비 △157억달러), **장기외채**는 외국인 국채투자 등으로 **증가**(+173억 달러)

○ 이에 따라 총외채 대비 단기외채 비중,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중 등 **대외건전성 지표**는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세

대외채무(기간말)

	'10년말	'11년말	'12년말	'13년		
				1/4	2/4	3/4
대외채무(억달러)	3,598	3,987	4,094	4,076	4,074	4,110
단 기	1,398	1,374	1,272	1,235	1,196	1,115
장 기	2,200	2,614	2,822	2,841	2,877	2,995
단기외채/총외채(%)	38.8	34.5	31.1	30.2	29.4	27.1
단기외채/외환보유액(%)	47.9	44.8	38.9	37.7	36.6	33.1

*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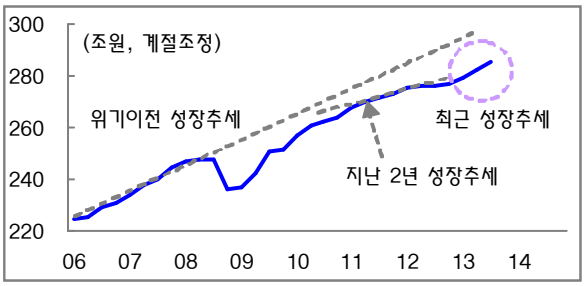
8. 평 가

□1 우리 경제는 성장·고용 등 **주요지표**가 **개선세**를 보이면서 2년여간 지속된 **저성장 흐름에서 반등**

○ 회복조짐이 점차 강화되고 있으나, **경기회복**을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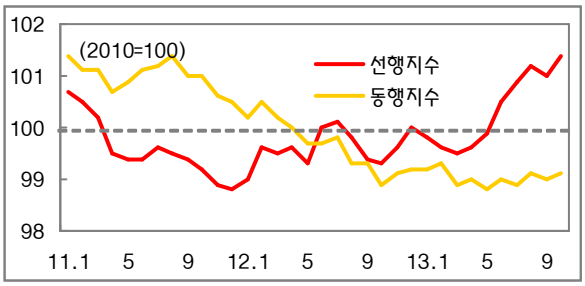
○ 특히, 美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외환·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 등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GDP 성장 추이



* 자료: 한국은행

경기동행·선행지수 추이



*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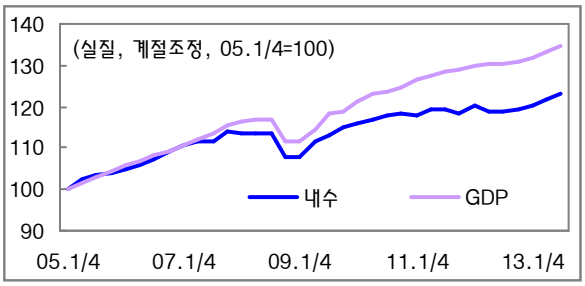
□2 최근 소비·투자 등 **내수가 다소 개선**되는 모습이나, 여전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추세수준을 하회**

○ **소비**가 점차 **개선**되고, **투자**도 최근 **완만하게 증가**하면서, 내수가 미약하나마 회복세

○ 다만, 그간 **누적된 내수 부진**과 **주택시장 정상화**가 **지연**되면서 중소기업·서민 등 **체감경기 회복**이 **더딘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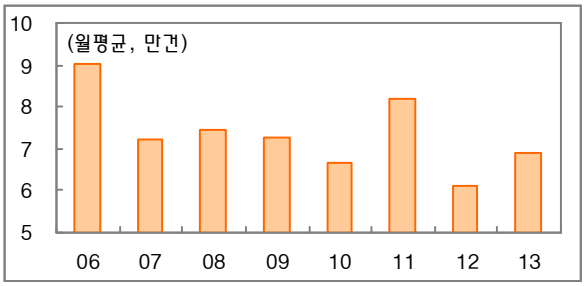
○ **경기회복 흐름**이 **내수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가계부채 연착륙, 주택시장 정상화, 규제개혁 등 **정책대응**이 **긴요**

내수(민간소비+총고정자본형성) 추이



* 자료: 한국은행

주택매매 거래량



* 자료: 국토교통부

Ⅱ. 대외여건 점검

1. 세계경제 | 완만한 회복흐름을 보이겠으나, 하방위험 상존

□ **(향후 여건)** 세계경제는 **완만한 회복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성장동력**이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전환**되는 모습

○ **선진국**은 **미국** 등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지속**되고, **유로지역**도 **경기침체**에서 **점차 회복**되는 모습

- **미국**은 **재정·통화정책** 등 **불확실성**이 있으나, 소비·주택 시장 등 **민간 경제활동**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강화**될 전망

- **유로지역**은 그간 경기침체로부터 **점차 회복**되는 모습이나, 고용 부진 등으로 **회복세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

- **일본**은 **확장적 재정·통화정책**으로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14년**에는 소비세율 인상 등으로 회복세가 **다소 둔화**될 전망

○ **중국 등 신흥국**은 **경기적·구조적 요인**으로 하방위험이 확대되면서 **성장속도가 이전보다 둔화**

- **중국**은 **성장전략 전환** 등으로 과거의 **고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우나** 정책여력 등을 감안 시 **7%대 성장은 무난**할 전망

세계경제 성장률 추이와 전망(%)

	실 적			전 망			
	'13년			'13년 연간		'14년 연간	
	1/4	2/4	3/4	IMF	OECD	IMF	OECD
세계경제 성장률	-	-	-	2.9	2.7	3.6	3.6
미 국(전기비연율)	1.1	2.5	4.1	1.6	1.7	2.6	2.9
유 로(전기비)	△0.2	0.3	0.1	△0.4	△0.4	1.0	1.0
일 본(전기비)	1.1	0.9	0.3	2.0	1.8	1.2	1.5
중 국(전년동기비)	7.7	7.5	7.8	7.6	7.7	7.3	8.2

*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13.10월), OECD Economic Outlook('13.11월) 등

2 (위험 요인) 美 양적완화 축소, 재정 관련 협상 진행 추이, 日 아베노믹스 향방 등 불확실성 상존

○ 美 **양적완화 축소**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가 심화**될 경우 일부 **신흥국**의 실물부문으로 전이되어 **성장 둔화 우려**

* 美 정책금리 상승 시 아시아 등 신흥국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칠 우려 (IMF World Economic Outlook, '13.10)

※ 아시아 주요 신흥국 경제 동향: 참고 12

○ **미국**은 최근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 폐쇄 재발 우려는 해소**되었으나, **채무한도** 등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

* 채무한도 적용 유예('14.2.7일까지)

※ 美 예산안·채무한도 관련 동향과 전망 : 참고 13

○ **일본**은 **소비세 인상**이 성장의 **하방요인**인 가운데, **구조개혁**이 **부진할** 경우 **재정위험 부각** 등으로 둔화 폭이 확대될 우려

* 日 정부 소비세 인상 계획: ('14.4월) 5 → 8%, ('15년 중) 8 → 10%

* '97년 소비세 인상(3→5%)시, 세계경제가 둔화하는 가운데 소비 등 내수가 급감하여 성장률이 큰 폭으로 하락[('97)1.6→('98) △2.0%]

○ **유로지역**은 **높은 실업률 지속**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 우려**와 **은행권의 디레버리징** 등이 회복에 부담을 줄 가능성

* 유로지역 실업률(%): ('10)10.1 ('11)10.2 ('12)11.4 ('13.1/4)12.0 (2/4)12.1 (3/4)12.0

○ 중국은 **성장전략 전환**(양적→질적) 과정에서 구조개혁을 통한 체질개선 노력이 부족할 경우 **향후 성장이 둔화**될 가능성

* 中 정부는 당중앙위 전체회의('13.11.9~12일)에서 전면적 개혁 의지를 보였으나, 경제개혁 관련 당초 시장 기대에 못미치는 수준으로 평가(FT 등)

[참고 12] 아시아 주요 신흥국 경제동향

1 **(현황)** 아시아 주요 신흥국(ASEAN 5개국* 중심)은 **양적완화 축소** 우려에 **취약성**을 보이면서 최근 **성장세가 전반적으로 둔화**

*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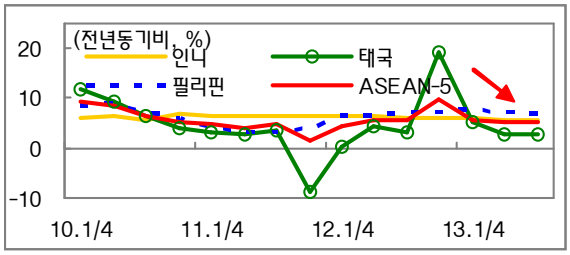
** 버냉키 美 연준의장의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 시사(5.22일) 이후 9월까지 인도네시아 등을 중심으로 자금 유출 및 화폐가치 급락 등 금융불안 경험

○ **인도네시아, 태국** 등은 경상수지 악화, 금융시장 불안정성 확대, 물가상승 등으로 **성장세가 저조한 흐름**

- 다만, **필리핀**은 물가안정과 안정된 내수를 기반으로 7%대 **성장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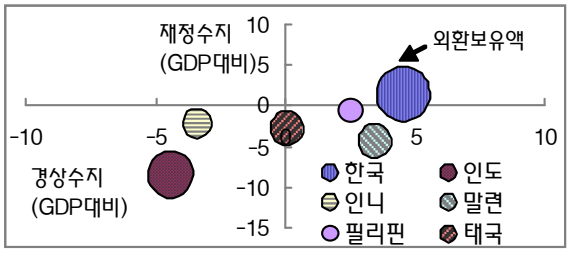
* 성장률(%, 전년동기비, '12.4/4~'13.3/4): (ASEAN-5)9.7→5.6→5.1→5.2 (인니)6.1→6.0→5.8→5.6 (태국)19.1→5.4→2.9→2.7 (필리핀)7.1→7.7→7.5→7.0

성장률 추이



* 자료: Bloomberg

GDP대비 경상수지, 재정수지



* 자료: IMF, Bloomberg

2 **(전망과 시사점)** 美 양적완화 축소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가 심화**될 경우, 실물부문으로 전이되면서 **회복세가 제약**될 전망

* ASEAN 5개국 성장률 전망 추이(%, IMF): ('12)6.2 ('13)5.0 ('14)5.4

○ 최근 **인도네시아, 태국** 등의 성장세가 약화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對 ASEAN 수출**(우리나라 수출의 약 15% 차지) **증가세가 둔화**

* 우리나라의 수출증감율(%, '13.1/4~3/4분기, 전년동기비): (對ASEAN) 11.5→8.5→4.4 (對인니) △7.9→△21.1→△9.4 (對태국) 21.3→1.3→4.4

○ 신흥국의 위험요인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므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수출시장 다변화,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

'14년 ASEAN 5개국별 리스크 요인

국가	주요 내용
인니	· 연료가격 상승, 정책금리 인상('13.6월 이후, 5.75→7.5%), 정치적 불확실성('14.4월 총선, 7월 대선) 등에 따라 부진할 전망
태국	· 정정 불안*으로 공공투자·소비 등 내수 침체 우려 * 잉락 총리의 가족인 탁신 前총리에 대한 사면 추진으로 총리 퇴진 요구 등 반정부 시위 확산
말련	· 재정긴축, 연료가격 상승 등으로 회복 여부 불확실
필리핀	· 1/4분기중 태풍 피해('13.11월)의 영향을 받겠으나 점차 회복세가 강화
베트남	· 부동산 침체 등에 따른 부실채권 문제 등 리스크 잠재

작성자: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 곽경준 사무관(044-215-2736)

[참고 13] 美 예산안·채무한도 관련 동향과 전망

1 **(최근 동향)** 정부폐쇄 등 **재정관련 정치적 대립***이 **지속**되었으나, 최근 **예산안이 처리**되는 등 불확실성 일부 완화

* 민주당은 세입증대를, 공화당은 오바마케어 등 세출삭감을 주장·대립

○ **16일간**(10.1~16일) **정부 폐쇄**가 발생하고, 디폴트 발생(10.17일) 예상일 새벽에서야 **채무한도 적용 유예 등**에 **합의**

* 정부폐쇄 영향: 4/4분기 성장률 0.2~0.6%p(전기비연율) 하락 예상(S&P 등)
* 합의내용: ① '14.1.15일까지 집행 가능한 잠정예산안
② '14.2.7일까지 채무한도 적용 유예

○ 최근 민주·공화 양당간 **예산 합의안**이 **상**(12.18일)·**하원**(12.12일)을 **모두 통과**하는 등 재정관련 협상에 큰 진전

* ① '14~'15 회계연도 기간 중 시퀘스터로 삭감될 예정이었던 예산한도를 총 630억달러 상향조정하여 재량지출 규모를 각각 1조달러 수준으로 확대
② 공무원 퇴직연금 삭감, 수수료 인상 등으로 850억달러 재원을 확보하여 향후 10년간 재정적자 200억달러 감축

2 **(평가·전망)** 예산 합의안이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초**(1~2월경) 우려되던 美 재정관련 **리스크**는 **크게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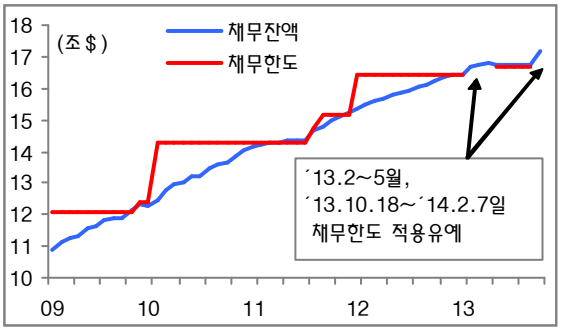
* 예산안 통과에 따라 '14.9월말까지 정부폐쇄 우려는 해소

○ 예산안과 달리 **채무한도 협상은 '14년 중간선거**(11월) 등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지속**될 가능성

○ 다만, 재무부 특별조치 등으로 **'14.1/4분기까지는 디폴트 위기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채무한도 적용 유예('14.2.7일) 경과 시, 공무원 퇴직연금기금 출연 중단 등 재무부 특별조치 시행 등으로 3월중순(골드만삭스)~6월말(CBO)까지 재정운용 가능

美 채무한도와 잔액 추이



* 자료: 美 재무부

향후 美 재정·통화정책 주요 일정

일자	내용
'13.10.1	'14 FY 예산안 불발로 정부폐쇄
10.16	잠정예산·채무한도 적용 유예 합의
12.18	'14 FY 예산안 통과
12.18	FOMC 회의(QE 축소)
'14.1.29	FOMC 회의
2.7	**채무한도 적용 유예 만료**, 유예 기간중 증가한 채무만큼 한도 상향
3.19	FOMC 회의(엘런 의장 주재)

작성자: 경제정책국 재정기획과 김현영 사무관(044-215-2836)

2. 국제원자재가격 | 유가는 하향안정 전망
원자재 가격은 소폭 조정 예상

1 **(국제유가)** 양호한 수급여건이 지속되어 '13년보다 소폭 하락한 **'14년 연평균 103$/B** 예상(두바이유 기준)

○ **非OPEC 공급 증가** 등에 따른 **수급여건 개선**, 美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달러화 강세** 등으로 **하향 안정세** 예상

* 非OPEC공급(백만b/d, EIA): ('12)52.67 ('13)54.16 ('14)55.93

○ 다만, **중동 정세 불확실성** 잔존, **OPEC의 전략적 감산 가능성** 등은 **하락폭을 제한**

주요 기관들의 국제유가 전망 ($/B, 기간평균)

기관 (전망시점)	유종	'13년	'14년			
			연간	1/4	2/4	3/4	4/4
에경연('13.11월)	Dubai	104.5	102.7	102.6	103.8	101.8	102.7
PIRA('13.11월)	Brent	108.9	106.3	108.0	104.9	107.1	105.0
EIA('13.11월)	WTI	97.7	95.0	95.7	95.3	95.7	93.3

*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PIRA(석유산업연구소), EIA(미국 에너지정보청)

2 **(국제곡물)** 옥수수 등 전반적인 곡물의 **생산 호조**로 가격은 **약보합세 유지 전망**

○ 다만, **기후여건** 악화에 따른 작황 부진 등 **불확실성 상존**

'13.하반기~'14.상반기 전세계 곡물 수급전망(백만톤, ( )는 전년대비)

	전체	밀	옥수수	콩
생산량	2,438(8.0%)	711(8.4%)	964(11.8%)	285(6.3%)
수요량	2,401(5.3%)	704(3.7%)	937(8.9%)	271(4.9%)
재고율	20.2%(0.6%p)	25.9%(0.0%p)	17.3%(1.6%p)	26.1%(2.8%p)

* 자료: 미국 농무부(USDA) '13.12월

3 **(비철금속)** 전반적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최대 수요국인 중국**의 경기 회복속도에 따라 **변동성 확대 가능성**

'14년 주요 비철금속 상승률 전망(%, 전년동기비)

	알루미늄	구리	니켈	주석	아연	납
상 반 기	△8.4	△7.7	△6.4	0.4	0.9	1.1
하 반 기	2.3	△4.4	8.1	6.7	10.3	10.7

* 자료: IB 평균, '13.10~11월

※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참고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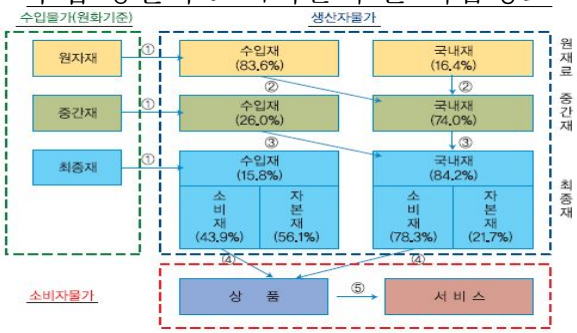
[참고 14]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1 **(개관)** 우리 경제는 **국제 원자재 가격** 등 **대외여건에 민감**한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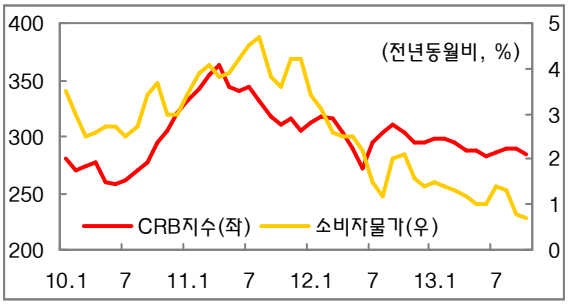
* 전체 생산 원재료 중 국제원자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84%

○ 원자재 가격은 **외화기준 수입가격** → **원화기준 수입가격**(환율 효과) → **생산자물가**의 경로를 거쳐 **소비자물가**에 영향

수입-생산자-소비자물가 간 파급경로



소비자물가와 국제 원자재 가격



*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Bloomberg

2 **(품목별 영향 분석)** 소비자의 직접 구입 품목에 해당하고, 연관 효과가 큰 **국제유가 변동**이 물가에 **가장 큰 영향**

① **(국제유가)** 직접 구입 품목인 **석유제품** 뿐만 아니라 **교통비·난방비·공업제품** 등을 통해 영향을 미치며 **시차가 짧음**

② **(국제곡물)** 밀가루·배합사료 등으로 **1차 가공된 후**, 이를 원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 축산물, 외식서비스**의 경로로 영향

③ **(기타 원자재)** 철강·비철금속 등의 가격 변동은 **소비재 공산품 원가**에 영향

10% 가격 하락시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한국은행)

	국제유가	국제곡물	기타 원자재
소비자물가(%p)	△0.45	△0.1	△0.1
파급시차	2주~1개월	4~7개월	3~11개월

3 **(향후 전망)** **내년**에도 **국제원자재 가격 안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은 **크지 않을 전망**

○ 다만, 중동지역 정세·기상여건 등 **예기치 못한 변수에 가격이 크게 좌우**될 수 있는 만큼 **모니터링을 지속·강화**할 필요

작성자: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 조혜령 사무관(044-215-27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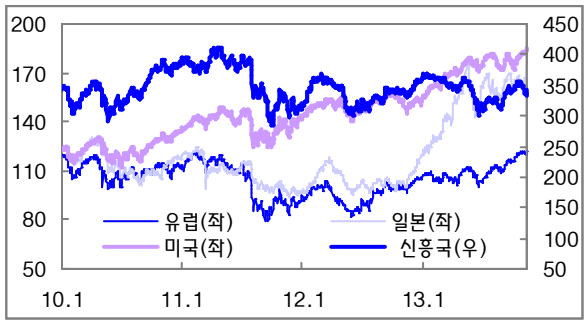
3. 국제금융시장 | 美 양적완화 축소 등 불안요인 잠재

□1 **(주가) 주가 변동성**은 **낮은 수준**이나, 美 양적완화 축소 및 재정협상 관련 불확실성, 유로존 정치불안 등 **잠재적 불안요인 상존**

○ **주요 선진국 증시**는 美 경제회복, ECB·BOJ의 완화적 통화정책 유지 등으로 **상승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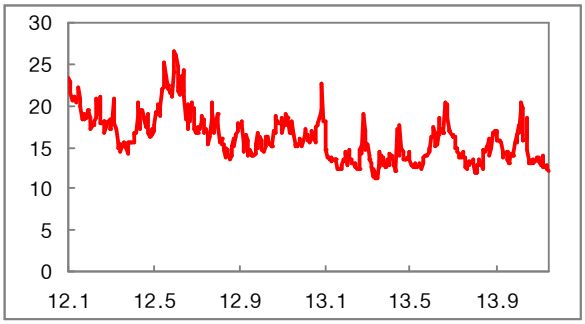
○ **신흥국 증시**는 최근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추세이나, 美 양적완화 축소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

주요국 주가



* 자료: Bloomberg

주가 변동성(VIX)



* 자료: Bloomberg
* S&P 500 지수옵션의 변동성에 대한 시장기대 (지수가 클수록 시장이 불안정하다는 의미)

□2 **(환율)** 주요국 환율 **변동성**은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모습

○ 美 **달러화**는 9월 FOMC 이후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으나, **11월 들어** 양적완화 축소전망이 제기되며 **약세기조 완화**

* 12월 FOMC(12.18일) 양적완화 축소(자산매입규모 100억불 축소) 결정

- **유로화**는 ECB의 금리인하에도 불구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엔화**는 BOJ의 추가 양적완화 기대감 등으로 **약세 흐름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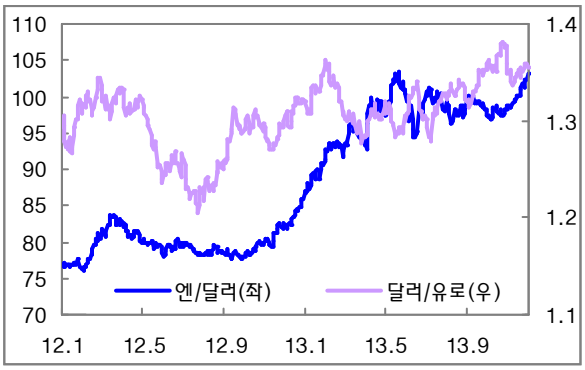
○ **신흥국 통화**는 9월 FOMC 이후 **약세기조는 다소 완화**되었으나, **11월**들어 다시 **약세로 전환**되는 등 **변동성**이 **확대**

월별 주요통화 절상률(달러화대비, %)

	미국	유로	일본	브라질	인도	인니
'13.8월	0.8	△0.8	△0.3	△4.6	△8.1	△5.9
9월	△2.3	2.4	△0.0	7.6	4.9	△5.7
10월	△0.0	0.5	0.1	1.2	2.3	3.6
11월	0.6	△0.1	△4.0	△4.1	△1.5	△5.8
12.1~19일	△0.1	0.5	△1.7	△0.9	0.5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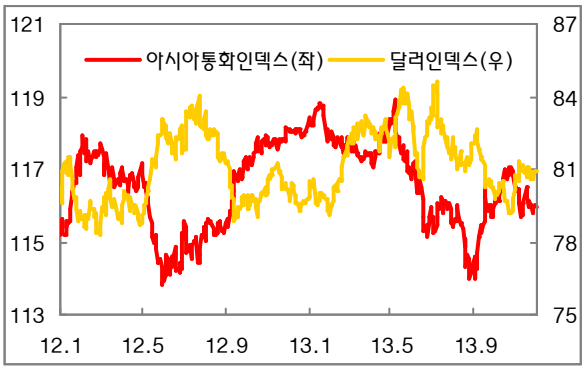
* 자료: Bloomberg(미국은 달러인덱스)

엔/달러, 달러/유로 환율



* 자료: Bloomberg

달러화인덱스, 아시아통화인덱스



* 주: 아시아통화인덱스는 달러화 대비 중국, 한국, 싱가폴 등 아시아 주요 10개국 통화의 평균가치
* 자료: Bloomberg

※ 美 양적완화 축소의 국내경제 파급효과: 참고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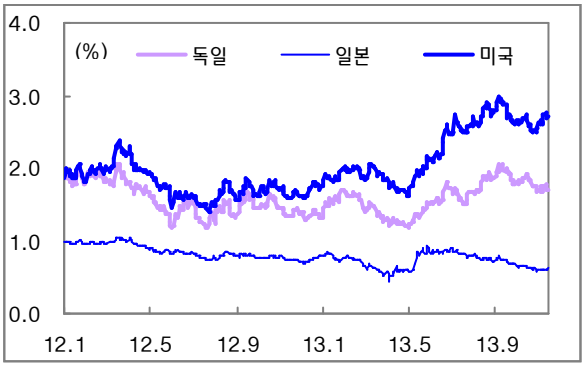
3 **(금리) 주요국 국채금리**(10년물)는 美 양적완화 축소시기 관련 전망에 따라 등락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상승세 지속**

○ 美 **금리**는 옐런 Fed 차기의장 지명자의 양적완화 유지 시사 발언 등으로 소폭 하락하기도 했으나, 美 **경제지표 개선, 양적완화 축소** 결정 등으로 **상승세** 지속

○ 日 **금리**는 BOJ의 양적완화 유지 및 추가적인 양적완화 조치 기대감 등으로 **하향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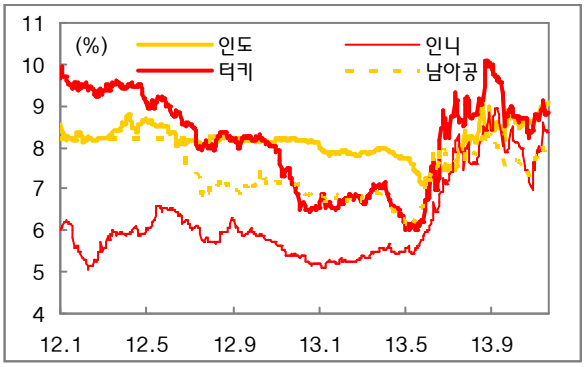
○ **신흥국 금리**는 외국인 채권자금 유출입 등에 따라 등락하면서 **美 국채금리 추세에 동조**하는 흐름

주요 선진국 금리(10년물)



* 자료: Bloomberg

주요 신흥국 금리(10년물)



* 자료: Bloomberg

[참고 15] 美 양적완화 축소의 국내경제 파급효과

1 **(의의 및 경과) 美 양적완화 축소 결정**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사상 유례 없이 지속된 **선진국의 비전통적 통화정책이 정상화**되는 **세계경제 패러다임 대전환**의 **서곡**

○ 美 **Fed**는 경제회복세에 따라 5월말 부터 **양적완화 축소**를 시사해 왔으며, **12월 FOMC**에서 **축소 시작 결정**(12.18일)

- 최근 美 **경제지표 개선**에 따라 **자산매입규모를 100억불(매월 850→750억불) 축소**하되 실업·물가상승률 연계 **초저금리 기조는 유지**

* 향후 고용시장 개선과 물가상승률의 장기목표 회복 지속시 추가로 자산매입 규모를 점차(modestly) 축소할 예정

○ **금리환경**(저금리→고금리), **글로벌 자금흐름**(신흥국→선진국, 채권→주식), **선진국 통화정책의 디커플링** 등 **세계경제·금융환경**의 **변곡점적 변화 불가피**

2 **(파급효과) 美 양적완화 축소**는 글로벌 자본이동의 변화를 통해 **금융시장** 뿐 아니라 **실물경제**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나 그 정도는 **축소규모**와 **속도**, **시장반응** 등에 따라 **상이**할 전망

○ 향후 양적완화 축소 **속도** 등에 따라 **시장의 변동성 확대**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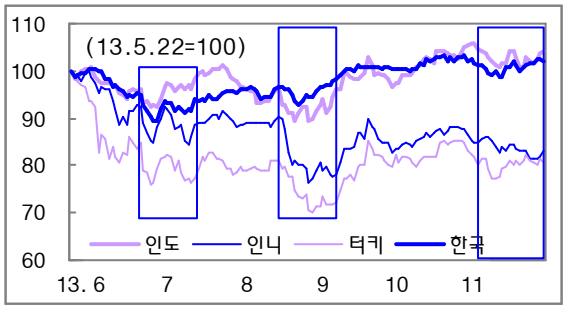
- 국내 금리와 주가가 **국제금리와 주가 변동**에 **일부 조정**받을 수 있으며, **외환시장 변동성도 확대**될 수 있으나 **시장기대에 상당부문 先반영**되어 **변동 폭은 제한적**일 가능성

* 美 연준 통화정책 전환기 시 주가 반응(Bloomberg, 국제금융센터)

► QE1 만료('10.4~5월중): 다우 △13%, 신흥국 △ 9%
► QE2 만료('11.7~9월중): 다우 △14%, 신흥국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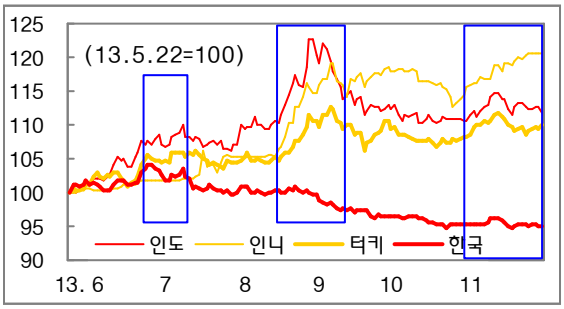
* 美 양적완화 축소 결정이후 국내 금융시장 동향(12.18일/12.20일)
: (주가, pt)1,974.6/1,983.4 (원달러, 원)1,051.3/1,061.2 (국고채3년, %)2.90/2.88

주요 신흥국 주가변동 추이



* 자료: 국제금융센터

주요 신흥국 환율변동 추이



* 자료: 국제금융센터

○ 양적완화 축소는 **美 경제회복**에 기초한 것이므로 중장기적으로 긍정적 효과가 예상되나 **금리·환율변동, 신흥국 경기둔화** 등이 **제약요인**

- **美 경제 회복이 지속**될 경우 **對美수출이 증가**할 전망이나 양적 완화 축소로 인한 **신흥국 경기둔화** 정도에 따라 **영향 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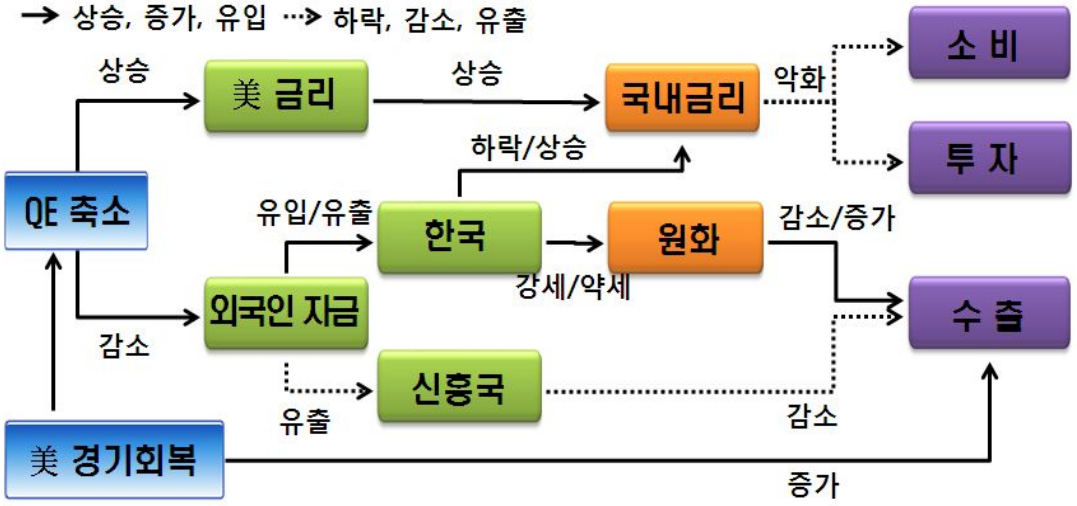
* 수출개선: 美 경기회복→對美수출 증가→ 신흥국의 對선진국 수출증가로 한국의 對신흥국 중간재 수출 증가(현대연 등)

수출악화: 한국의 총수출 중 신흥국 비중(57.9%)이 선진국(42.1%)보다 크므로 신흥국 불안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더 클 전망(SERI 등)

- **시장금리 상승**시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가계·기업차주**의 **이자부담이 증가**하면서 **소비, 투자 등이 위축**될 가능성

- **외국인 자금 유출입**에 따른 **환율의 변화**는 수출상품의 가격 경쟁력에 영향을 미쳐 **수출의 변동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실물시장 영향 파급경로



3 **(평가)** 美 **양적완화 축소**는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나, 美 **경제회복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변동 폭이 제한적**일 경우 **실물경제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

○ 미국 등 선진국 경기회복세를 **수출 활성화로 연결**시키는 등 **우리 경제 성장 모멘텀**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 필요**

○ 또한, '08년부터 지속해 온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의 전환**을 의미하므로 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대외건전성 강화 등 노력** 지속

작성자: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 최 연 사무관(044-215-2755)
국제금융정책국 국제금융과 김민규 사무관(044-215-4714)

Ⅲ. 2014년 경제전망

1. 경제성장

(1) 실질 GDP 성장률: 연간 3.9% 성장 예상

1 **(성장 흐름)** 세계경제 성장세 확대, 정책효과 지속 등으로 '10년 이후 **4년만에 세계성장률**(IMF, 3.6%)을 **상회**하는 **3.9% 성장** 예상

* 세계경제/한국경제 성장률(%): ('11)3.9/3.7 ('12)3.2/2.0 ('13e)2.9/2.8 ('14e)3.6/3.9

○ 경제성장률(전년동기비)이 **금년 4/4분기** 중 **3% 후반 수준**에 도달한 이후 **경기회복세**를 **이어갈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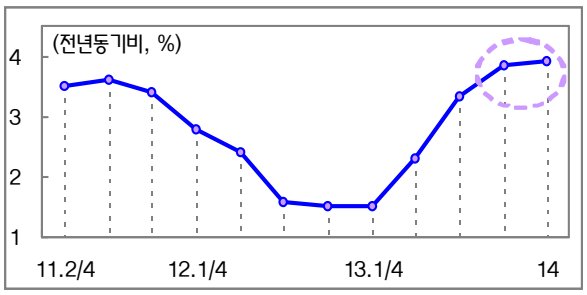
○ **상반기**는 확장적 거시정책 등을 통한 **경기보완**, **하반기**는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민간부문 개선세 확대로 **연중 고른 성장세** 시현

2 **(성장 구성) 수출·내수** 모두 개선되면서 **성장에 골고루 기여**

○ 내수는 **민간소비**가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설비투자 회복세**가 **강화**되면서 성장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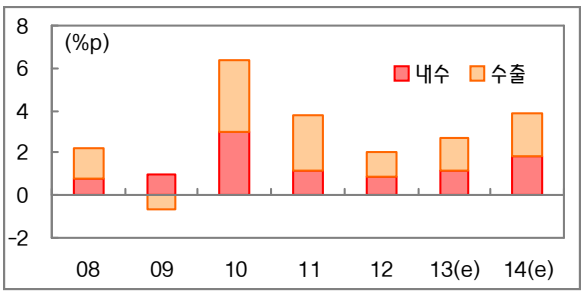
○ **수출**은 대외여건이 개선되면서 **증가세가 확대**되어 금년보다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확대

GDP 성장경로



* '13.4/4분기, '14.상·하반기 정부 자체전망

내수와 수출의 순성장 기여도



* 산업연관표상 수출·내수의 수입유발효과를 각각 차감하여 순성장기여도 산출

3 **(상·하방 요인)** 美 **채무한도 협상**,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신흥국 성장둔화·자본유출입 변동성 확대, 日 **경제 향방** 등은 하방위험

○ 다만, 美·유로 등 **선진국 성장세 강화**, 美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불안 조기 안정 시** 성장률이 예상보다 **개선**될 소지

(2) 민간소비: 연간 3.3% 증가 예상

□1 **(소득 여건)** 물가가 안정된 가운데, 고용증가에 따른 **실질구매력 개선**으로 **양호한 소득여건 지속** 예상

○ 3년 연속 1~2%대의 **물가안정**이 지속되고, **일자리 로드맵** 추진 등으로 고용여건이 개선되면서 **실질구매력은 양호한 증가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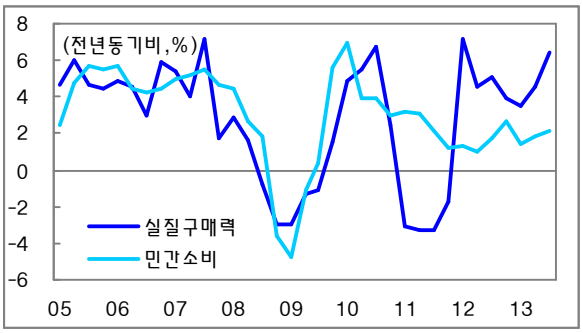
○ **가계 흑자율 증가세**가 지속되는 등 **소비여력**이 **점차 개선**

* 가계 흑자율 증감(전년동기비, %p): ('12.4/4)2.3 ('13.1/4)2.1 (2/4)1.0 (3/4)1.4

○ 최근의 **교역조건 개선세**는 당분간 **소득여건에 긍정적**이나, **원자재 가격 하락세**가 **둔화**되면서 점차 **개선세는 약화**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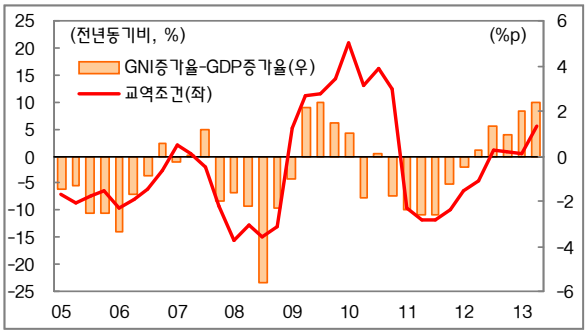
* 두바이유($/B): ('12.4/4)108 ('13.1/4)108 (2/4)101 (3/4)106 (10~11월)106
* CRB지수: ('12.4/4)298 ('13.1/4)297 (2/4)286 (3/4)288 (10~11월)279

가계 실질구매력과 민간소비



* 주: 실질구매력 = 실질임금 × 취업자수
**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교역조건과 GNI-GDP 증가율 격차



* 자료: 한국은행,
** 교역조건(2010년 이후 신지수 기준)

※ 교역조건이 민간소비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 참고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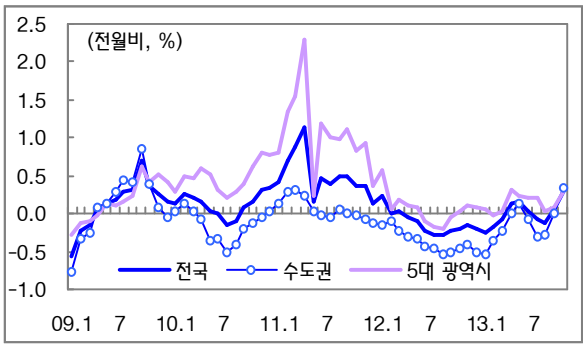
□2 **(자산 여건) 주택가격은 다소 회복**되는 모습이나, **주가변동성**은 향후 **대외불확실성에 따라 확대**될 가능성

○ **8.28 부동산대책**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회복 조짐**을 보이는 등 **자산여건 개선**

* 주택거래량(전년동기비, %): ('13.1/4)△6.9 (2/4)55.5 (3/4)△1.1 (10~11월)26.5
* 주택가격상승률(전월비, %): ('13.1/4)△0.5 (2/4)0.3 (3/4)△0.2 (10)0.3 (11)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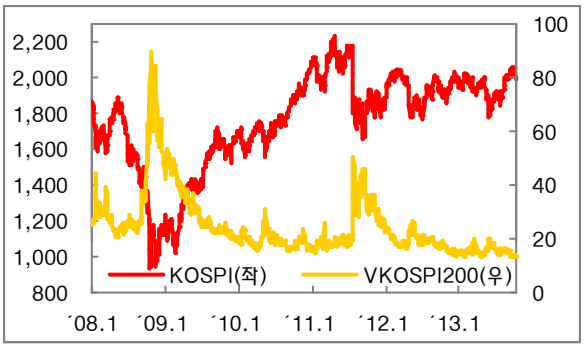
○ 美 양적완화 축소, 아베노믹스 향방 등 **대외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

주택 매매가격



* 자료: 한국감정원

주가지수와 변동성



* 자료: 한국거래소, Bloomberg

3 (기타 요인) 소비심리는 양호하나, 전월세 및 가계부채 부담 등이 소비회복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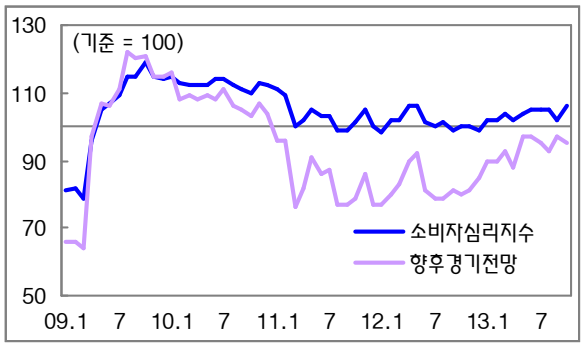
○ **소비자심리지수**가 금년 들어 **기준치**(100)를 **지속적**으로 **상회**하는 가운데, 향후 경기전망도 개선되는 등 **심리여건**은 **양호**

○ 다만, **전월세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유동성 제약 등을 통해 **중·저소득층**의 **소비여력을 제약**할 가능성

○ 美 양적완화 축소 등에 따라 **가계대출금리**가 **상승**할 경우, 가계이자부담 증가가 **소비 부담요인**으로 작용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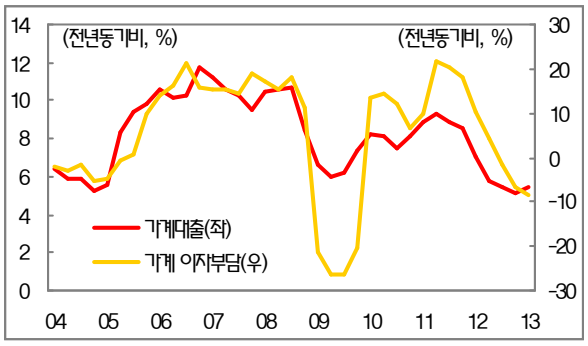
* 가계대출금리(신규, %): ('12.3/4)4.99 (4/4)4.71 ('13.1/4)4.67 (2/4)4.28 (3/4)4.30

소비자심리지수



* 자료: 한국은행

가계신용과 이자부담



* 주: 가계 이자부담 = 가계대출 × 가계대출금리
** 자료: 한국은행

4 ('14년 전망) 양호한 소비심리, 실질구매력 개선 등으로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13년(1.9%)에 비해 개선된 3.3% 증가 전망

○ 다만,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계부채 부담** 등이 **소비증가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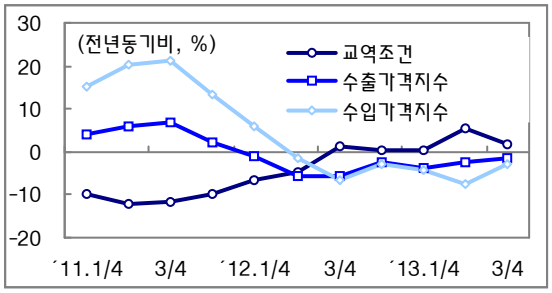
[참고 16] 교역조건이 민간소비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현황)** 최근 반도체 등 **수출가격이 회복**되는 가운데, 유가하락 등으로 **수입가격 하락세가 지속**됨에 따라 **교역조건 개선세**

* 두바이유(전년동기비, %): ('12.상)5.4 (하)0.5 ('13.상)△6.2 (3/4)△0.0
* 반도체 수출물가(전년동기비, %): ('12.상)△36.2 (하)△19.2 ('13.상)12.8 (3/4)2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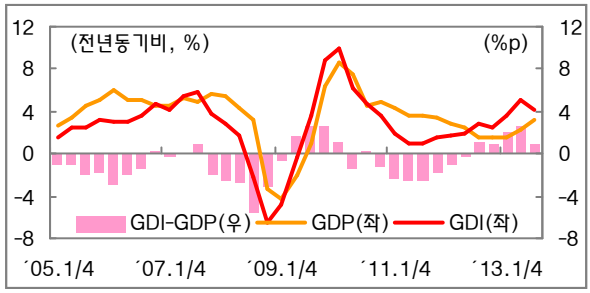
○ '12년말 이후 **GDI**(무역순손익 반영) **증가율**이 **GDP증가율**을 **상회**

교역조건과 수출입가격지수



* 자료: 한국은행

GDP 및 GDI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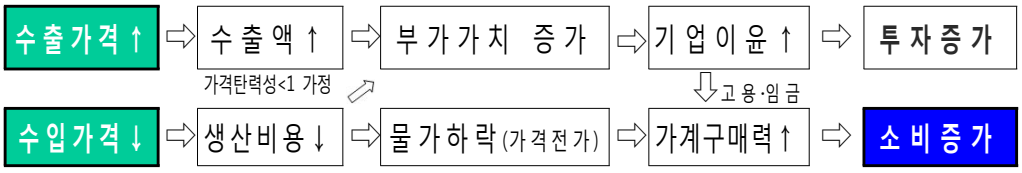
* 자료: 한국은행

2 **(교역조건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교역조건 개선**시 소비·투자 등 **실물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경상수지도 단기적으로 개선**

○ **(소비·투자) 수입가격 하락·수출가격 상승**시 물가하락으로 인한 **민간구매력 제고, 기업이윤 증가** 등으로 **소비·투자 개선**

* 교역조건 1% 증가 시 민간소비 약 0.09% 증가 예상(자체추정)

교역조건 개선의 실물경제 파급경로



○ **(경상수지)** 수입가격 대비 수출가격 증가세 확대로 1차적으로 **개선되나**, 2차적으로 **소득증대**에 따른 **수입 증가**로 **개선효과 약화**

* '13.3/4분기까지 교역조건 개선이 경상수지 흑자에 약 64억달러 기여(KDI)

3 **(향후 여건)** 최근의 교역조건 개선세는 **당분간 민간소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

○ 다만, 향후 원자재 가격 하락세 둔화, 반도체 등 수출가격 하락 등으로 **교역조건 개선세**가 **지속되기는 어려울 전망**

작성자: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 박상우 사무관(044-215-2735)

(3) 설비투자: 연간 6.2% 증가 예상

□1 **(투자 여건) 수출과 내수**의 **완만한 개선**에 따른 **투자수요 확대, 투자활성화 대책 효과 가시화** 등으로 점차 개선

○ **대내외 불확실성**이 **점차 완화**되는 가운데, 선진국 중심의 세계경기 회복, 소비 개선 등으로 **투자수요가 확대**될 전망

* IMF경제전망('13→'14년, %): 세계 2.9→3.6, 미 1.6→2.6, 유럽 △0.4→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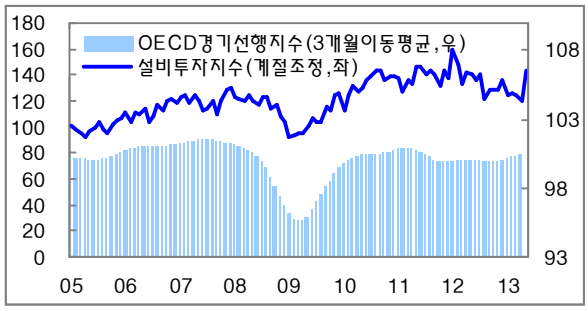
○ 규제완화 등 **정부의 투자여건 개선 노력**이 **지속**되고, 그간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의 효과가 점차 가시화**

* '14년 상반기까지 10개 프로젝트가 착공(총17.8조원)되어 '14년 GDP 약 0.2%p 증대 효과(KDI)

○ 최근 들어 기업의 **투자심리**도 **완만하게 개선**되는 가운데, **주요 기업의 설비투자가 13년에 비해 확대**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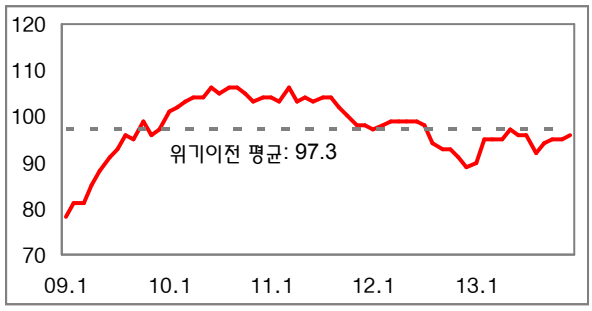
* 설비투자계획(정금공 12.8일, 조원): (13실적) 131.1 (14계획) 136.2 (+3.9%)

OECD 경기선행지수와 설비투자



* 자료: 통계청, 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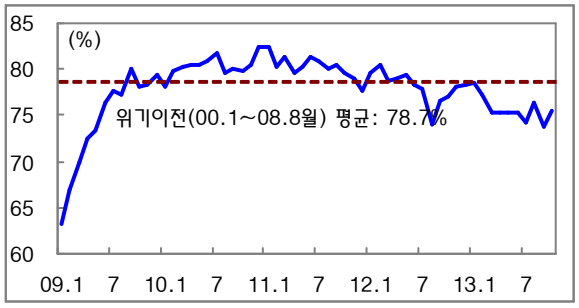
제조업 설비투자전망 BSI



*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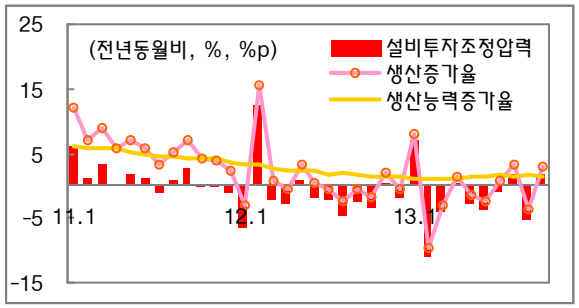
○ 다만, 제조업 내 **높은 수준의 유휴설비 존재**는 설비투자의 **회복 속도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

제조업 평균가동률



* 자료: 통계청

설비투자조정압력



* 자료: 통계청

2 **(업종별 여건)** 전기전자, 자동차 등 **주력업종의 설비투자가 확대**되고, **발전부문**도 '13년에 이어 **투자가 지속**될 전망

○ 반도체 수요가 확대되면서 **IT부문**의 **투자 확대가** 예상되며 **자동차 부문**도 **신차개발** 등의 영향으로 **투자 개선** 가능성

* 무선통신기기용 반도체수요(Gartner, 십억불): ('12)68.1 ('13e)72.4 ('14e)76.2
* 자동차생산증가율(자동차산업협회, %): (11)9.0 (12)△2.0 (13e)△1.4 (14e)2.2

○ **전력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발전부문 투자**도 **신규 발전소 착공** 등으로 **투자 수요를 견인**해 나갈 전망

* '13년 착공(여수, 북평, 서울복합) 및 '14년 착공예정(당진, 영흥, 동부그린 등)

3 **(투자여력 등)** **기업**의 **투자여력 확대**, **중소기업 지원정책**도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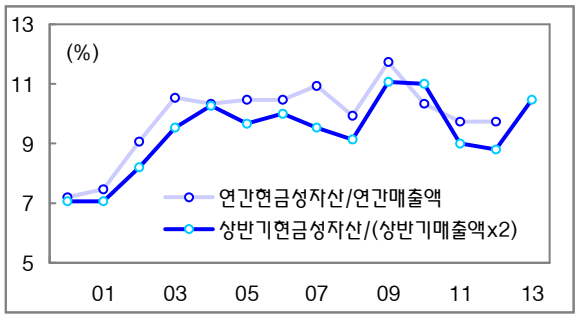
○ 그간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투자 보류 등으로 **기업의 현금성 자산이 증가**하는 등 **투자여력이 확대**

- **'14년 설비투자 시 내부 자금조달** 계획이 **전년 대비 확대**

* 기업 설비투자 자금조달 구성(% '13→'14년, 정책금융공사):
내부 62.7→64.6, 외부 37.3→35.4(직접금융 19.5→18.2, 간접금융 17.8→17.2)

○ 정책금융 확대 등 **투자지원정책**은 **중소기업의 투자여건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전망

기업(상장기업 기준) 투자여력



* 자료: KIS-Value 활용 자체추산

정책금융 확대 등 투자지원 정책

주요 내용
▪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13조원** 확대 * 투자 +2, 매출채권보험 +4, 신용보증 +6
▪ 수출 금융 확대(10.2조원) * 수은 여신 확대 +6.2, 무역보험 인수 확대 +4
▪ 신성장산업 투자펀드 조성(1.1조원)
▪ 외국인투자기업, U턴기업 정착 지원
▪ 경제특별구역 인프라 지원(0.2조원)

* 자료: 기획재정부(14년 예산안)

4 **('14년 전망)**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증가세 확대, 정책효과 가시화 등으로 '13년(△1.6%)에 비해 개선된 **6.2%** 증가 전망

○ 다만, 美 **통화·재정정책 향방, 투자활성화 법률 개정**관련 **불확실성** 등으로 설비투자 **회복이 제약될** 우려

(4) 건설투자: 연간 2.0% 증가 예상

□ **(주택건설) 주택수주 감소, 입주물량 확대**, 공공·민간부문의 **주택공급여건** 등을 감안할 경우 향후 **개선세가 둔화**될 가능성

○ '12년 하반기 이후의 **수주감소 영향 가시화, '14년 입주물량**(준공물량) **확대**(전년대비 +36.5%)가 주택건설투자에 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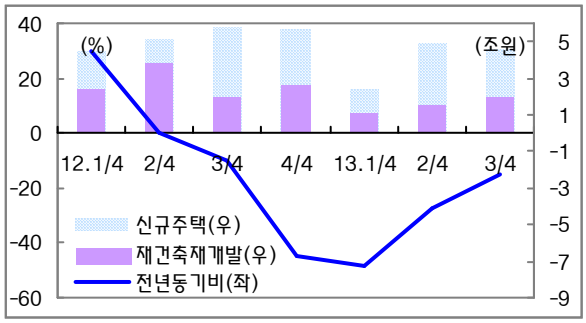
- **공공부문** 임대주택 공급은 지속되나, **분양주택 공급 축소**는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17년까지 행복주택(총 14만호)을 포함, 임대주택 51만호 공급 지속
* 공공분양주택 공급추이(인허가, 만호): ('10)7.4 ('11)5.6 ('12)5.2 ('13^{e})1.0

- **민간부문은 건설사**들의 **재무구조 개선이 지연**되는 등 **자금조달 어려움**이 주택투자를 제약할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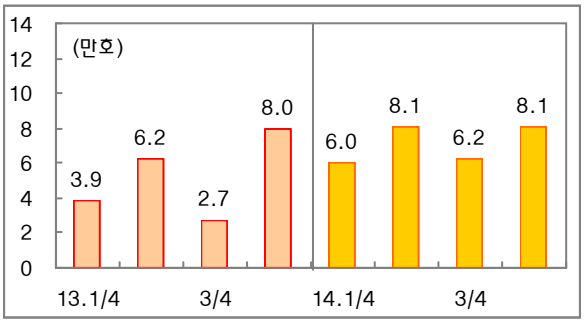
* 이자보상배율 1미만 상장건설사 비중(%): ('10상) 28.2→('11상)47.1→('13상)47.5
* 자금조달전망BSI(건산연): ('12)80.0 ('13.1/4)77.2 (2/4)81.3 (3/4)80.0 (4/4)68.6

주거용 건축수주



* 자료: 통계청

'13-'14년 아파트 입주예정물량



* 자료: 국토교통부

○ 다만, **수도권** 중심의 **주택시장 회복세, 준공후 미분양 감소추세** 등은 향후 주택투자에 **긍정적 요인**

* 준공후 미분양(만호, 기말): ('12)2.9 ('13.1/4)2.7 (2/4)2.7 (3/4)2.5

- 2차례 부동산 대책 시행으로 **거래량이 증가**하고 **매매가격 하락세가 진정**되는 등 시장회복 조짐

* 아파트매매가격(전월비, %, 전국): (13.6)0.1 (7)△0.1 (8)△0.1 (9)0.1 (10)0.4 (11)0.3
* 아파트매매거래량(전년동월비, %, 전국): (13.6)155.3 (7)△33.5 (8)△1.8 (9)52.1 (10)45.3 (11)22.8

2 (비주거용 건물건설) 기업의 설비투자가 확대되고, 공공부문의 청사이전 지속 등으로 증가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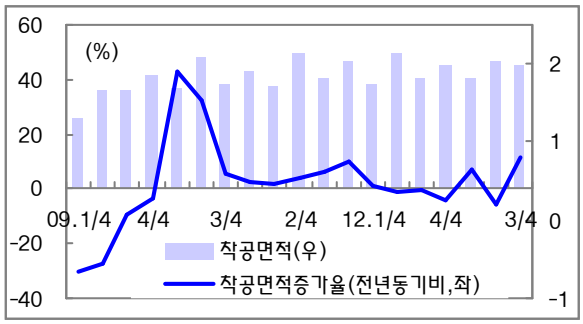
○ **비주거용 착공면적**이 **'13년 하반기 들어 증가세**로 전환한 가운데, 투자대책 등 **정책효과**도 건설투자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 투자활성화 대책 중 현장대기프로젝트 일부 본격화, 산업단지 기능 회복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노후단지 재정비 지원 추진

○ **세종시·혁신도시** 청사건설 등 **공공부문 투자수요**는 **지속**

* 청사신축 125개 기관(완료 27, 미착공 14, 공사진행 84) '15년까지 이전완료 예정

비주거용 착공면적



* 자료: 국토교통부

산업단지 관련 주요 대책

주요 내용
▪ 도시지역첨단산업단지조성(9개 추가지정)
▪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 및 노후단지 재정비 ('14년 0.8조원)
▪ 투자 인센티브 제공 - 토지 조성원가 공급, 용적률 상향(250~300→450~500%), 공장·상업·업무시설 복합개발 허용, 의무녹지율 축소 등

* 자료: 기획재정부

3 (토목건설) SOC예산 감소 등의 영향으로 둔화 전망

○ '14년 SOC예산은 23.3조원으로 '13년 추경예산 대비 **△7.0% 감소**

SOC예산 부문별 규모 및 증감률(조원, %)

	도로	철도	항만·공항	수자원	물류·지역	계
예산규모(13→14년) (증감률)	9.2→8.4 (△8.7)	6.9→6.6 (△4.7)	1.61→1.59 (△1.2)	2.77→2.35 (△15.1)	4.6→4.4 (△4.4)	25.0→23.3 (△7.0)

* '13년 추경예산, '14년 예산안 기준

○ 다만, **발전·플랜트 부문**은 신규 착공 등으로 **개선세가 지속**되고 **지자체·민간 투자** 등도 **투자수요**를 **보완**할 전망

* '13년 착공(여수, 북평, 서울복합) 및 14년 착공예정(당진, 영흥, 동부그린 등)

* 평창동계올림픽(~18년, 총11.1조원), 인천공항 3단계건설사업(~17년, 총4.9조원)

4 ('14년 전망) 비주거용 건설이 증가하겠으나 주택·토목건설이 부진하여 '13년(7.0%)에 비해 낮아진 연간 2.0% 증가 예상

2. 고 용 : 취업자 45만명 증가 예상

1 **(고용 여건)** 경기 개선,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 등으로 **최근의 고용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

○ 내수 회복, 사회서비스 수요 증대 등으로 **음식·숙박** 등 **전통 서비스업**과 **보건·복지업** 등을 중심으로 고용 개선세 지속

- **제조업**, **건설업**은 업황 등 고려 시 큰 폭의 개선은 어려울 전망

○ 맞벌이 부부 증가, 베이비붐 세대 진입 지속 등으로 **여성·고령층의 경제활동참여 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다만, **자영업** 과당경쟁에 따른 **구조조정** 등은 **은퇴한 고령층**의 **고용 증가**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시장 구조 개혁 노력 등으로 **고용 여건이 점차 개선**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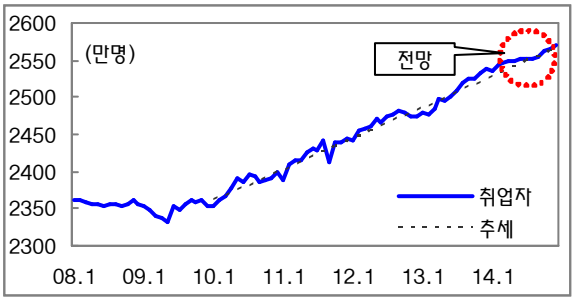
* 시간선택제 공무원·교사 채용·전환을 위한 관계 법령 개정 추진

2 **('14년 전망)** **'14년 취업자는 '13년**(38만명)에 비해 확대된 **45만명 증가** 예상

○ **최근 고용 흐름, 정부 일자리 사업 확대** 등으로 **45만명 수준** 증가가 전망되며,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5대 핵심과제**(근로시간 단축, 시간선택제 확산 등)의 본격 추진으로 **추가 고용 창출**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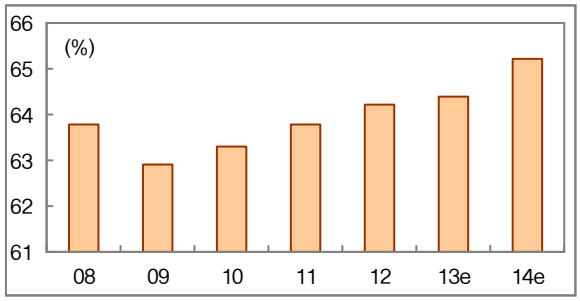
○ **'14년 고용률**(15~64세)은 **65.2%**('13년보다 0.8%p 상승)로 개선, **실업률은 3.0%**로 '13년(3.1%)보다 0.1%p 하락

취업자수 추이 및 전망



* 자료: 통계청

고용률 추이 및 전망



* 자료: 통계청

※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 추이와 시사점: 참고 17

[참고 17]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 추이와 시사점

□ **(시기별) 성장의 고용창출** 효과는 **90년대까지 약화**되다 **00년대** 들어 **안정화**되는 모습

* 전체 취업자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성장률 1%당 고용증가 규모는 지속 확대

○ 특히, '11년 이후에는 성장 둔화에도 불구, **정부의 고용확대** 노력, **서비스업 고용창출력 유지** 등으로 **고용탄성치*가 상승**

* 성장률 1%당 고용(만명): ('11)11.2 ('12)21.9 ('13)13.6
성장률 1%당 취업자 증가율(고용탄성치): ('11)0.47 ('12)0.90 ('13)0.55

- 다만, **'12년**에는 그간 감소세이던 **자영업자가 이례적으로 크게 증가**(12.4만명)하면서 **고용탄성치 상승**을 주도

□ **(산업별) 제조업**은 고용창출이 **90년대부터 거의 정체**되는 모습이나 고용안정성이 높은 **상용직**에서 **고용창출이 확대**되면서 **질적인 개선세**

○ **서비스업**은 80년대부터 제조업에 비해 **높은 고용창출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상용직 고용창출력도 개선**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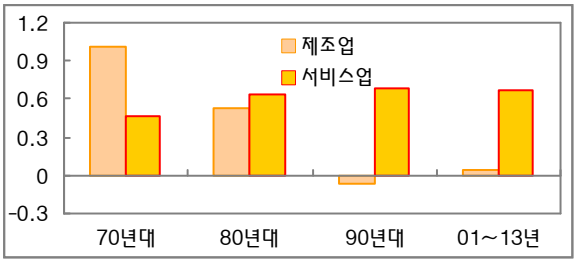
* 제조업 상용직 고용탄성치: (90년대)△0.07 ('01~'13)0.74
서비스업 상용직 고용탄성치: (90년대) 0.51 ('01~'13)1.50

- 다만, **고부가가치 업종**의 **고용창출력**은 **다소 둔화**

* 출판·정보, 금융·보험, 전문·과학, 교육업 고용탄성치: ('05~'10)0.74 ('11~'13)0.58

성장률 1%당 고용 영향

제조업, 서비스업 고용탄성치



* '13년 성장률은 2.8%, 취업자 증가 규모는 38만명 가정
* 성장 또는 고용이 감소한 연도('80, '84, '98, '03, '09년)는 제외

□ **(시사점)**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성장**과 함께 **업종별**로 **차별화**된 일자리 정책 필요

○ **제조업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규 투자 촉진**이 긴요

○ 고용창출력이 높은 **서비스업**은 규제완화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 창출** 분야의 일자리 확대에 주력

작성자: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 이재화 사무관(044-215-2734)

3. 소비자물가 : 연간 2.3% 상승 예상

□1 **(물가 여건) 경기회복**으로 **수요측 상승압력**이 나타나겠으나, **원자재 가격 안정** 등으로 **안정세 유지**

○ **(수요 요인)** 경기의 완만한 회복, 인플레 기대심리 상승 등으로 **수요측면의 물가상승 압력**이 나타날 전망

○ **(공급 요인)** 국제유가·곡물가격 안정, 환율 안정 등으로 **공급측 하방압력**은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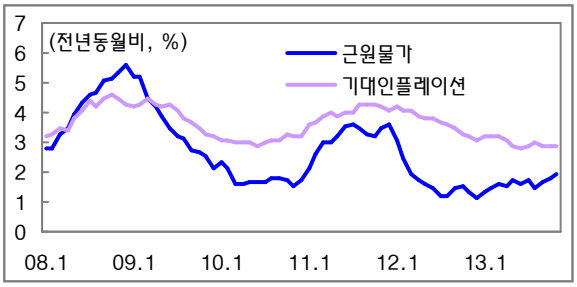
* '14년 곡물가격전망(전년비, WB): (옥수수)△0.8% (콩)△1.9% (밀)△1.6%

- 다만, 중동 정세불안, 기상이변 가능성 등 **불안요인 잠재**

○ **(기타 요인)** 무상보육·급식 확대('13.3~)로 인한 **제도적 효과가 소멸**되면서 물가 **상승요인**으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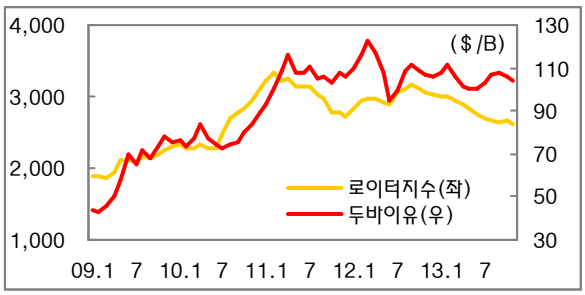
* '14년 제도적 요인에 의한 소비자물가 영향
► (상승요인: 0.2%p 내외) 무상보육·급식에 따른 하락효과 소멸
► (하락요인: △0.1%p 내외)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전면 무료 시행

근원물가와 기대인플레이션



*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유가·원자재 가격 추이



* 자료: CRB, 석유공사

□2 **(부문별 여건)** 전반적으로 **'13년보다 다소 높은 수준의 상승세**가 예상되나, **공업제품 가격 등은 안정세**를 유지할 전망

○ **(농축수산물) 평년 수준의 가격상승**이 예상되나, **기저효과·사육두수 감축*** 등은 **추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암소 20만마리('11.6~13.5월), 모돈 10만마리('13.3~8월) 旣감축

○ **(공업제품) 원자재 가격·환율 안정** 등으로 '13년과 유사한 안정세가 예상되나,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등 불안요인 잠재

- **석유류**는 국제유가 하락으로 **안정세**가 **유지**되겠으나,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등 **불안요인 상존**

* 세계 석유수급 전망(에경연, 백만b/d): <'13> (공급) 91.5 (수요) 91.0
<'14> (공급) 92.4 (수요) 92.0

- **국제곡물가격 약세가 지속**되면서 시차를 두고 **가공식품 등 여타 공업제품의 가격 하락요인**으로 작용

* 국제곡물가격 10% 하락 시 소비자물가는 0.1%p 하락(한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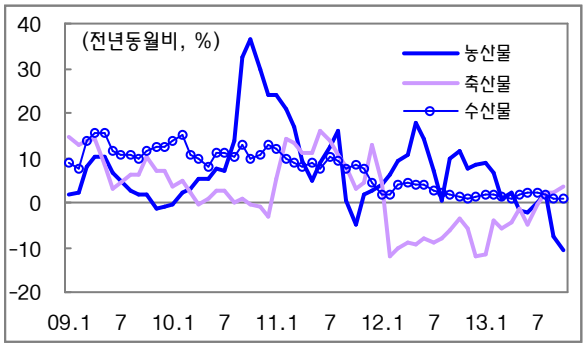
○ **(공공요금)** 전반적인 **안정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원가 보상률이 낮은 요금을 중심으로 상승압력** 예상

○ **(서비스요금)**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증가와 제도적 효과 소멸 등으로 서비스 요금 **다소 상승** 예상

- 특히, 내수가 점차 개선되면서 **외식·여행 서비스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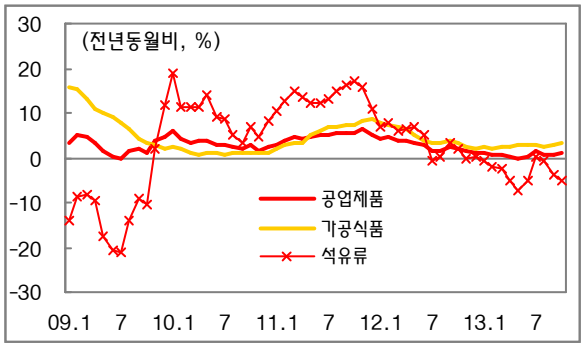
* 비교역재 성격이 강한 서비스 물가는 내수여건에 민감하게 반응(KDI)

농축수산물 가격동향



* 자료: 통계청

공업제품 가격동향



* 자료: 통계청

3 ('14년 전망) 소비자물가는 **연간 2.3% 상승** 전망

○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측 압력요인이 있겠으나, 국제원자재 가격 안정 등으로 **3년 연속 1~2%대의 안정세 지속** 전망

4. 수출입과 경상수지

(1) 수출(통관): 연간 6.4% 증가 예상
수입(통관): 연간 9.0% 증가 예상

□ **(수출)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 등으로 '13년(2.5%)에 비해 개선된 **6.4% 증가** 전망

○ 선진국 중심으로 세계경제가 회복되고 세계교역량도 증가하면서 **글로벌 수입수요가 점차 확대될 전망**

* 세계교역 증가율 전망(IMF, %): ('12)2.7→ ('13)2.9→ ('14)4.9
* 세계 수입증가율 전망('13→'14, IMF, %): (선진국)1.3→3.7 (신흥국)5.4→6.1

- 우리 수출에 2~4개월 선행하는 **OECD 선행지수도 14개월 연속 상승세**

* OECD 선행지수(전월비,%): ('13.6)0.08 (7)0.08 (8)0.08 (9)0.08 (10)0.07

○ 지역별로는 선진국 중심의 경기회복으로 **對美·對EU 수출이 개선**되고, **對中 수출도** 높은 가공무역 비중 감안시 **증가세 유지**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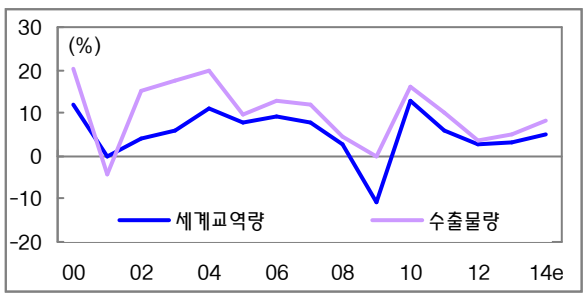
- 다만, **엔화약세 등으로 對日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양적 완화 축소, 경기둔화 등으로 **對신흥국 수출 둔화 가능성**

○ 품목별로는 내년에도 반도체 등 **IT 품목이 수출을 견인**하는 가운데, 선진국 경기회복으로 **자동차 등도 증가** 예상

- 다만, **원화강세, 반도체 수출단가 하락, '12년 선박수주 감소** 등이 수출 개선세를 일부 제약할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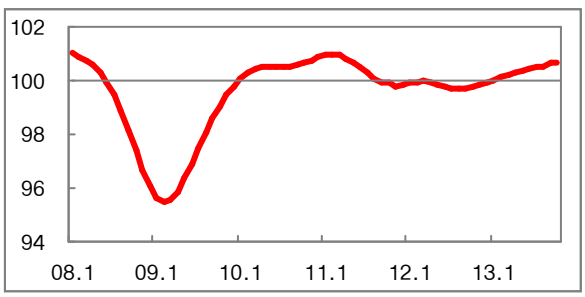
* D램 전망(Gartner, $): ('11)1.44 ('12)0.94 ('13)1.77 ('14)1.52
* 선박수주량(조선협회, 만CGT): ('09)141 ('10)815 ('11)1,163 ('12)717

세계교역량과 우리나라 수출물량



* 자료: IMF, 한국은행

OECD 선행지수



* 자료: OECD

2 **(수입) 수출과 내수의 완만한 회복**에 따라 수입수요가 증가하면서 '13년(△0.3%)에 비해 개선된 **9.0% 증가** 전망

○ 소비·투자 등 내수가 회복되면서 **소비재, 자본재**를 중심으로 수입수요 **증가 예상**

○ **수출이 완만하게 회복**되면서 전체 수입중 약 40%를 차지하는 **수출용 원·부자재 수요도 점차 증가**

○ 다만, '14년 중에도 **非OPEC 생산 호조**로 유가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원자재 수입 부진**은 지속될 전망

* 유가 전망(두바이유, 에경연, $/B): ('12)109.0 ('13e)104.5 ('14e)102.7

(2) 경상수지: 연간 490억달러 흑자 예상

1 **(상품수지)** 유가안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세계경기 회복으로 수출이 증가하면서 **높은 수준의 상품수지 흑자 유지(450억불)**

○ 내수회복에 따라 수입이 증가하면서 '13년보다 **흑자폭은 감소**

2 **(상품외수지)** 여행수지 및 사업서비스수지 적자 확대 등으로 서비스수지를 중심으로 **상품외수지 흑자폭 둔화 예상(40억불)**

○ 엔화약세 등으로 **여행수지 적자폭이 확대**되고, 수출증가세로 **사업서비스수지도 둔화**되면서 **서비스수지 흑자 감소**

- 다만, 세계교역량 확대 및 화물운임 증가, '12년 해외건설수주 실적 개선 등으로 **운송수지 및 건설수지는 흑자 확대** 예상

* 화물운임지수(BDI): ('13.6월)940 (7)1,123 (8)1,088 (9)1,629 (10)1,880
* 평균 공기(2~3년) 감안시 '14년 건설수입은 '12년 수주물량 영향('11년 591→'12년 648억불)

○ **본원·이전소득수지는** 배당·이자지급 등이 증가하면서 **흑자 소폭 감소** 예상

※ 국제수지 통계체계 개편('14.3월)으로 경상수지 내역 및 규모 변동 예상

경상수지 전망(억달러)

	2012년	2013년e	2014년e
▸ 경상수지	431	700	490
▸ 상품수지	383	590	450
▸ 서비스·본원·이전소득수지	48	110	40

※ 글로벌 교역사슬(Trade chain) 현황과 시사점: 참고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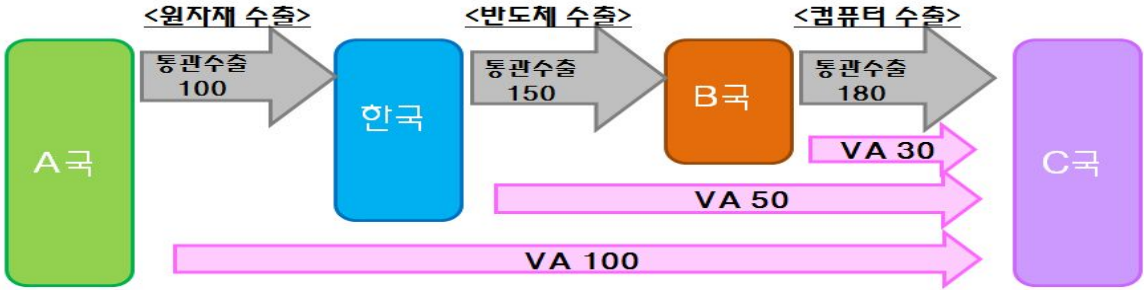
[참고 18] 글로벌 교역사슬(Trade chain) 현황과 시사점

□1 **(배경)**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확산으로 **중간재 교역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 수출통계로는 수출영향 분석에 한계**

* 한국→B국으로 반도체 수출 후 B국에서 조립되어 C국으로 재수출시 한국의 반도체 수출은 B국 경기보다 C국 경기 영향을 크게 받음

○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최근 **OECD**는 지역별 **제품의 최종 수요를 반영**하는 **부가가치 기준 수출입 통계**를 발표('13.5월)

통관기준과 부가가치 기준 통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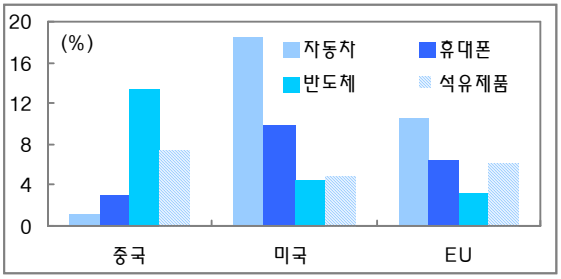


□2 **(현황) 통관기준**으로는 **對中수출이 가장 높지만, 최종 수요**를 **고려**한 부가가치 기준으로는 **對美, 對EU수출**이 **對中수출**을 **상회**

○ **對中 수출**이 중국내 최종소비보다는 제3국 수출을 위한 **중간재** 수출 중심인데 반해, **對美·對EU 수출**은 **최종재** 중심인데 기인

○ 이는 높은 對中수출 비중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출**이 중국 등 신흥국보다는 **선진국 경기 영향이 크다는 의미**

국가별 주요 수출품목(비중)



* 무역협회

우리나라의 지역별 수출 비중('09)

(%,%p)	통관기준(A)	부가가치 기준(B)	B-A
對美	12.1	19.4	7.3
對EU	13.2	18.0	4.8
對日	6.1	7.1	1.0
對中	28.3	14.9	△13.4
對아세안	9.0	6.1	△3.0

* OECD-WTO, ViTA

□3 **(시사점)** 최근 신흥국 경기회복 지연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경기가 회복되면서 우리 수출은 개선세**를 이어갈 전망

* 지역별 성장률 전망(%, '13→'14, IMF): (세계)2.9→3.6 (선)1.2→2.0 (신)4.5→5.1

○ **對신흥국 수출**은 **선진국 경기회복**을 통해 **일부 보완** 가능

작성자: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 서진호 사무관(044-215-2732)

별 첨 1 2013~2014년 경제전망 요약

(전년동기비, %)

	'12년 실적	'13년 1/4	'13년 2/4	'13년 3/4	'13년 연간e	'14년 전망
전망 전제						
세계경제(PPP)[1]	3.2	-	-	-	2.9	3.6
Dubai 유가($/bbl)	109	108	102	104	105	103
실질 GDP	2.0	1.5	2.3	3.3	2.8	3.9
민간소비	1.7	1.5	1.8	2.1	1.9	3.3
설비투자	△1.9	△11.9	△4.6	1.5	△1.6	6.2
건설투자	△2.2	2.4	7.2	8.6	7.0	2.0
취업자 증감(만명)	44	26	32	42	38	45[2]
고용률(15~64세, %)	64.2	63.0	64.8	64.9	64.4	65.2[2]
소비자물가	2.2	1.6	1.2	1.4	1.3	2.3
경상수지(억달러)	480.8	99	198	190	700	490
상품수지(억달러)	398.2	93	158	166	590	450
수출(통관,%)	△1.3	0.4	0.7	2.7	2.5	6.4
수입(통관,%)	△0.9	△3.0	△2.8	0.3	△0.3	9.0
서비스·본원·이전 소득수지(억달러)	82.6	6	40	24	110	40

1」 IMF World Economics Outlook('13.10월)

2」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을 통해 45만명 이상의 고용 창출 노력

별 첨 2 주요 기관 2014년 전망 비교

(전년동기비, %)

	정부 ('13.12)	한은 ('13.10)	KDI ('13.11)	금융연 ('13.10)	현대연 ('13.10)	LG연 ('13.10)
전망 전제						
세계경제(PPP)	3.6	3.6	3.6	3.6	-	3.4
유가($/bbl)	103	102	100	102	-	100
실질 GDP	3.9	3.8	3.7	4.0	3.8	3.6
민간소비	3.3	3.3	3.6	3.2	2.7	2.8
설비투자	6.2	5.7	8.4	7.5	6.7	5.2
건설투자	2.0	1.7	2.9	2.2	2.5	1.1
취업자 증감(만명)	45	38	40	41	-	34
소비자물가	2.3	2.5	2.0	2.4	2.4	2.5
경상수지(억달러)	490	450	510	529	490	437
상품수지(억달러)	450	400	458	565	399	-
수출(통관,%)	6.4	7.6	4.2	5.7	8.4	9.5
수입(통관,%)	9.0	10.2	7.7	5.5	10.5	12.6
서비스·본원·이전 소득수지(억달러)	40	50	52	△36	91	-

2014년 경제전망 담당자

분야	담당자 (사무관)		연락처 (044-215~)
GDP·종합	종합정책과	임홍기	2714
산업생산	경제분석과	김귀범	2731
수출입	경제분석과	서진호	2732
민간소비	경제분석과	박상우	2735
설비·건설투자	경제분석과	한주희	2733
고용	경제분석과	이재화	2734
물가	물가정책과	이복원 조혜령	2771 2775
부동산시장	부동산정책팀	백누리	2851
가계동향	정책기획과	박성창	2814
금융시장	자금시장과	김성철 송윤주 최연	2753 2754 2755
외환시장	외화자금과	이재우	4733
세계경제	경제분석과	곽경준	2736
국제금융시장	국제금융과	황석채	4712